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2008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수정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문규

이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수정

김수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2007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교육대학원

국문초록

민요는 민중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향유되며,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민중적인 구술문학이다. 지역 특유의 가락과 정서적 특성이 드러나 있는 민요는 개인 정서의 표출뿐만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주도는 과거부터 자연적·지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인근 문화권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제주도 사회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다. 제주도는 타 지역의 생활과는 이질적인 많은 부분들을 간직하여 오늘날 민속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 전승되는 민요는 타 지역의 민요보다 질적·양적으로 풍부하고 문화자료적 의의 또한 크다. 따라서 제주도 민요를 고찰하는 활동은 제주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적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제주도 전통문화의 특이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즈음에서 지역의 삶과 정서가 결합된 민요를 연구하여 사실과 기능의 측면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는 일은 가치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토 민요인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제주도 노동요의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 제주도 노동요의 성격과 위상을 확실히 한 후, 제주도 노동요의 대표격인 <맷돌·방아노래>와 제주 해녀들이 노를 저어 나가며 부르는 노래인 <해녀노래> 사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제주 여성의 의식을 탐색해 보았다. 아울러 제주 여성의 무한한 저력과 자립정신에 기반한 제주 노동요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요소와 삶의 지혜를 내면화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현 국어교육에서의 민요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제주도 노동요의 교육현장 활용방안 검토 및 수업활용의 구체적인 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용은 민요를 살아있는 자료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 가치를 보존, 계승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강조한다.

목 차

국문초록

| | |
|--|----|
| I. 서 론 | 1 |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
| 2. 연구사 검토 | 3 |
| 3. 연구 방법 | 8 |
| II. 제주도 노동요의 개관 | 10 |
| 1. 제주도 노동요의 형성 배경 | 10 |
| 2. 제주도 노동요의 분류 | 14 |
| 3. 제주도 노동요의 특성과 위상 | 16 |
| 3-1. <맷돌·방아노래>의 특성 | 18 |
| 3-2. <해녀노래>의 특성 | 23 |
| III.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에 나타난 여성 의식 | 29 |
| 1. <맷돌·방아노래>에 나타난 여성 의식 | 29 |
| 1-1. 세계에 대한 의식 - <좋은 좋은...> 등의 노래 | 31 |
| 1-2. 자연에 대한 의식 - <하늘 굴른...> 등의 노래 | 34 |
| 1-3. 제도에 대한 의식 - <나어멍은...> 등의 노래 | 36 |
| 1-4.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의식 - <전승 굿이...> 등의 노래 | 40 |
| 2. <해녀노래>에 나타난 여성 의식 | 44 |
| 2-1. 세계에 대한 의식 - <전복 한 이어도...> 등의 노래 | 47 |
| 2-2. 자연에 대한 의식 - <몸짱으랑...> 등의 노래 | 49 |
| 2-3. 제도에 대한 의식 - <산도 촌지...> 등의 노래 | 51 |
| 2-4.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의식 - <정든 님이사...> 등의 노래 | 53 |

| | |
|-------------------------------------|----|
| IV. 제주도 노동요의 교육현장 활용방안 | 57 |
| 1. 국어교육에서의 민요교육 실태 | 57 |
| 2. 제주도 노동요의 교육현장 활용방안 | 59 |
| 3. 제주도 노동요의 수업 활용의 예 | 62 |
| 3-1. 교과서 수록 민요의 재구성을 통한 활용의 예 | 62 |
| 3-2. 수업을 통한 활용의 예 | 67 |
| V. 결 론 | 78 |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민요는 민중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향유되는, 사설·가락·기능이 융화된 노래로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민중적인 구술문학이다.

민요는 민중의 노래이다. 그러므로 지배층의 시가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지배층의 시가가 오류를 읊고 음풍농월을 노래한 것이라면, 민요는 당시대 민중들의 애잔한 삶의 고통과 恨, 슬픔과 괴로움을 토해내고, 사랑과 기쁨, 희망과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중의 노래인 민요는 민중들의 삶을 표현하고, 그들의 생활감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음이, 형식에 구애받고 윤리관에 얽매인 지배층의 시가와와는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민요는 민중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서 민중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스스럼없이 만들어지고 개작되고 변형되면서 그 시대를 사는 민중들의 삶과 의식을 반영하여 왔다.¹⁾

제주도 민요는 척박한 絶海孤島의 한계상황에서 자진하지 않고 살아남아 인간이기를 지향한 제주 도민, 좁게는 제주 여성들의 삶을 반영한다.

三多·三無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제주도는 섬 중앙에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온화한 기후와 인문 및 천연적인 자연환경으로 말미암아 ‘동양의 하와이’라 불릴 만큼 각광받고 있는 섬나라이다. 또한 絶海孤島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민요의 보고로써 다른 고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주도다움’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제주 도민의 삶의 역경이 깊숙이 배어 있다. 화산회토로 뒤덮인 비좁고 메마른 땅에서 가난과의 투쟁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오면서 눈물의 역사를 근면과 검소, 자강불패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오늘의 제주도를 있게 한 제주 여성들이 있다.

제주도는 중세와 근세에 걸쳐 조정으로부터 천시를 받던 유형의 섬으로, 남쪽바

1) 김도훈, 1999, 「제주 민요 <맷돌노래>에 나타난 서정성 연구: 恨 motif를 위주로」, 서강대 석사논문.

다로부터는 왜구를 막는 버팀목으로, 또한 말과 감귤과 전복 등의 진귀한 공물담당 지역으로, 파란이 많은 역사를 가진 섬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노동량에 따른 고통은 당연한 귀결이었기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노래는 더욱 밀착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지리학적 특성은 제주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남성들이 수중 고혼이 되는 일이 잦기에 실제 여성이 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녀들 역시 육지의 논농사에 종사하는 이들과는 달리 목숨을 걸고 일을 하기에 보다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농업에서도 밭농사가 중심이 되었기에 여성의 비중이 높아 보리를 쪼고 쪼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았고, 또 그녀들이 주요 노동에 남성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제주도의 민요를 여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제주도 민요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요는 삶의 현장에서의 노래로, 기록문학과는 달리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나 이상과 정서 등이 가미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 안겨져 살아온다. 개인에게는 일의 의무를 복돋아 주고 삶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동시에, 집단에게는 더 큰 용기와 질서있는 노동의 능률을 가져오고 인화로의 길을 열어주어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고무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의미가 공존²⁾하게 된다. 그만큼 민요에서 노동요의 위치는 막중한 것이며, 이에 여성의 역할을 주로 노래하는 제주도 노동요의 진중함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래의 흐름을 보면 제주 노동요는 작업현장에서 분리되어 사실과 가락만이 전승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활동들이 산업의 현대화, 기계화로 인하여 점차 퇴로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동요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작업현장에서 분리된 노동요는 가창자들의 정서와 삶의 현장성을 반영한 살아있는 자료이면서도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빠른 사양의 길을 걷게 된다. 이에 傳承基緣이 사라지기 전에 민요자료를 보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처럼 제주 민요의 전승이 현장에서 단절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주 민요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제주 민요가 지닌 정신적인 요소, 특히 제주 여성들의 저력과 고난극복 의지 등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2) 김무현, 1986,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p. 23.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교육적 자료로의 활용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민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를 하여 다음 세대에도 민요가 생명력을 지닌 매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각처에서 연행되었던 노동요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특히 사설적 요소의 집중적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주도 노동요가 지니는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제주도 노동요의 교육적 계승 및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제주도 민요의 연구사 검토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주 민요의 수집과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제주 민요 연구의 과제와 방향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민요에 대한 다각적인 수집과 연구는 1930년대 이후 국학연구의 시발과 그 때를 같이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는 광복 이후의 일인데, 국내외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에서의 민요 수집과 관심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주도 민요에 대한 언급은 1923년 2월 1일자 『개벽』 32호에 50수의 맺돌 노래가 소개되면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필자인 강봉옥은 민요를 소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主長女子들이 부르는 노래울시다. 露骨的 單調로운 ‘리리크’ 로써 참으로 우리 민족의 情에 줄이고 사랑의 憧憬에 心情의 샘이 넘쳐나는 설움이올시다.

이와 같이 그는 제주도 민요의 성격을 ‘설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민요 특히 <맺돌노래>에 대한 최초의 논의이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그 성격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제주도 민요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일본인 다카하시(高橋亨)이다. 한국민요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고증에 열의를 보인 그는 제주도는 실로 한국 민요의 보고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제주도 민요를 일어

로 번역하였고, 육지에 처음 소개된 제주도 민요를 이제현의 『益齊小樂府』의 일부임을 밝혀냈다.³⁾ 그 후 1934년 ‘조선중앙일보’ 5월 19일자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전설의 나라’라는 고정란에 제주도 민요가 2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필자인 유엽은 두 번째 글에서 제주도 민요는 특히 女謠가 많음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 主旨는 앞의 강봉옥의 그것과 대동소이 하다.

이곳이야말로 女人國일 것이다. 市場에도 여인들, 勞役場에도 여인들, 남자들은 閑游하는 食客에 불과하다....(중략)... 그러므로 다른 것도 대개는 여자의 손을 빌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이곳의 특색이지만 민요까지도 역시 그러하여 이 곳 민요는 全部가-全部는 假使 아닐지라도 거의 全部가-여자의 愁懷를 읊은 것이다.

그 후 金陸人이 1939년 8월 『삼천리』에 제주도멜로디라는 맺돌노래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여기서 그는 제주도는 특히 살림살이에 恨이 많으나 어느 정도는 생활이 遊閑한 고장이며 이것이 전설과 민요를 낳는 요소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후 최초의 민요집인 김소운 이후의 민요집에서는 방언의 특이성과 지역적으로 본토와 유리된 자연·지리적 상황을 기반으로 제주도 민요를 별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소운의 『조선구전문요집』에서는 제주도 민요가 전라도편에 속해 있고 15편의 제주도 민요가 게재되었는데, 그 중 2편의 노래 좌측에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임화·이재욱의 『조선민요선』에서는 분류의 기준없이 서정가·결혼가정에 관한 가요·思想歌·自嘆歌·서경요·詞喻歌·노동가요·서사가요로 상위분류를 하고 하위분류로는 나름대로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기능별로 나누기도 했다. 제주도 민요는 맨뒤에 별도로 예시했는데 기능에 따라 8가지로 나누어 제목을 붙인 후 55수의 민요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방중현·김사엽의 『조선민요집성』에서는 1편은 구전문요, 2편은 영남가사, 3편은 제주도 민요로 분류하고 있는데, 序에서 방중현은 제주도 민요는 자신이 직접 채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100여편의 민요가 수록되어 있다. 처음 두 편에는 작가 나름대로의 장황한 해설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자료 나열에 불과하다. 한편 제주

3) 『익제소악부』의 耽羅謠, 西湖謠, 都近川謠는 그 후 임동권의 『한국민요사』에서 ‘탐라의 민요’로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

도 민요는 타 지역의 그것과는 시형·어휘·어조·정감 등이 다르고 지역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미루어 따로 항목을 세워 구분하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장사훈·성경린의 『조선의 민요』는 도별로 나누어 민요를 소개하고 있으나 제주도편은 없고 경기도편에 <오돌뫌>이란 노래가 한편 실려 있는데, 註에서는 원래 제주도 전래 민요이던 것이 50년전 서울에 유행하여 크게 유행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謠詞는 제주도의 <오돌뫌> 중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아마 채집자들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므로 <오돌뫌>의 가락으로 불리던 노래여서 제주도 민요로 거론한 것 같다. 1958년 진성기의 『제주도민요』에서부터 1965년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 上』까지는 필자들이 현지에서 채록한 것이다.

근래 들어 제주도 민요에 대한 연구자로서 김영돈, 김대행, 좌혜경, 다카하시(高橋亨) 등을 들 수 있다.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 上』은 가장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집으로, 학계에서도 집중조사로서 가장 완벽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학적 접근도 김영돈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제주도 민요 전반에 걸친 연구가 거의 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의 연구성과는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⁴⁾과 「제주도 민요 연구」⁵⁾에 잘 나타나 있다.

김대행은 『한국시의 전통연구』⁶⁾에서 민요와 한국시를 비교·분석하면서 민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제주 노동요의 민요론적 가치」⁷⁾에서 노동요의 노래동기, <맷돌노래>의 창법의 특이성, 특히 교환창의 네가지 유형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 맷돌노래와 민요 논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민요론집』 4호⁸⁾에 실린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에서는 노래방식 중에서 교창형식의 특이성 및 노래 자체를 화제로 삼고 있는 특이성을 바탕으로 노동요를 다루고 있다.

좌혜경은 「한국 민요의 사설구조연구」⁹⁾에서 민요의 문학성을 규명해내려고 노

4) 김영돈, 1976,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5) _____, 1982, 「제주도 민요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6) 김대행, 1981, 『한국시의 전통연구』, 개문사.

7) _____, 1993, 「제주 노동요의 민요론적 가치」,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8) _____, 1995, 『민요론집』, 민속원.

9) 좌혜경, 1992, 「한국 민요의 사설구조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력하였고 최근에는 『민요시학연구』¹⁰⁾를 펴내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고 있다. 한편 그는 다카하시(高橋亨)의 『濟州道の民謠』를 번역해 그녀가 편저한 『제주섬의 노래』¹¹⁾에 실었다.

다카하시(高橋亨)은 『濟州道の民謠』¹²⁾를 저술, 이 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요의 분류와 그 형식에 관한 고찰이다. 이를테면 분류기준의 하나로서 여성창자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제주도가 여타의 섬 특성을 고려해서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민요수집을 통한 연구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학생들에 의해 마을별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조사된 자료는 조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¹³⁾ 임동권의 『한국민요집』¹⁴⁾의 발간이 지속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9-1, 9-2, 9-3)¹⁵⁾와 『한국의 민속음악 : 제주도편』¹⁶⁾의 발간을 계기로 현장론적 방법에 의한 조사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1989년 민요학회가 창립되면서 제주 민요에 대한 현지 자료조사와 세미나 개최, 민요론집 발간 등을 통해 제주 민요 연구를 한층 심화·발전시키게 되며,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¹⁷⁾발간을 시작으로 제주 민요 관련 연구자료가 풍성해 지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지금까지 제주 민요에 대한 연구물들은 문학적·민속학적·음악학적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연구물이 축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종합적인 연구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10) _____, 1996, 『민요시학연구』, 국학자료원.

11) _____, 1995,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2) 다카하시, 1968, 『濟州道の民謠』,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3) 『제주도부락지』(I)-(IV), 1981-199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이 자료집은 70년대부터 80년대에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제주도의 마을별로 조사한 학술보고서 자료를 묶은 자료집이다. 민요만이 아니라 설화, 방언, 신앙 등이 조사 채록되어 있다.

14) 임동권, 1961-1981, 『한국민요집』, 집문당.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1983, 『한국구비문학대계』(9-1, 9-2,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 _____, 1984, 『한국의 민속음악: 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 문화방송, 1992,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첫째, 연구의 촉진을 위해 자료수집 활용면에서 기존의 민요자료와 연구물들을 조직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¹⁸⁾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요자료의 색인작업과 연구문헌에 대한 정리와 체계화¹⁹⁾, 전산화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집에 산재해 있는 민요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재구성하고 집성하는 작업²⁰⁾이 구체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민요학회 회원들의 수집한 자료의 공유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민요 유형의 조사와 정리도 민요의 단절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고 하겠다.

둘째, 현상론적 문맥을 바탕으로 한 문화사회학적 연구와 본토 민요, 주변 국가의 민요간의 비교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해 제주 민요가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학의 한 장르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민요교육과 민요 활용에 관한 문화적 측면의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민요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복원하고 다음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요의 가치와 의미 복원 및 교육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계선상에서의 연구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 민요의 전승이 현장에서 단절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주 민요가 지닌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제주 민요가 지닌 정신적인 요소, 특히 제주 여성들의 저력과 고난극복 의지 등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육적 자료로의 활용 또한 절실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 언급된 세 가지 해결과제 중 마지막 과제에 착안하여 제주 노동요를 통한 다양한 측면의 사실 분석을 통해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주 여성들의 의식을 살펴보고, 이를 교육적으로 내면화하고 요즘의 청소년들에게 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데 의의를 둔다.

18) 강등학, 2006,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19) 좌혜경, 1994,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 『민요론집』 제3호, 민요학회.

20) 김영돈 편저, 1993,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

윤치부, 1999,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3. 연구 방법

민요 연구 방법은 민요 연구자의 민요자료를 보는 관점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²¹⁾ 민요는 사설, 가락, 기능과 같은 구성요소와 현장의 결합에 의해 연행이 실현되는데, 이 중 어느 요소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연구방법이 결정된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근래의 흐름을 보면 제주 민요는 작업현장에서 분리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전승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산업의 현대화, 기계화로 인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활동들이 점차 퇴로의 양상을 보이며 특히, 노동요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업현장에서 분리된 노동요는 가창자들의 정서와 삶의 현장성을 반영한 살아있는 자료이면서도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빠른 사양의 길을 걷게 된다. 이에 傳承基緣이 사라지기 전에 민요자료를 보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민요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복원하고 다음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각처에서 연행되었던 노동요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특히 사설적 요소의 집중적 연구를 통하여 시가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살핌과 동시에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제주도 노동요가 지니는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제주도 노동요의 교육적 계승 및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한 후 연구의 방법을 제시한다.

제 II 장에서는 제주도 노동요의 개관을 통해 노동요의 형성 배경과 분류 등을 다루었고, 제주도 노동요가 타지방 민요와 대비하여 지니는 특성과 위상을 살펴본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의 기능적, 형식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사실의 분량이나 내용으로 보아 제주도 노동요의 주종을 이루는 대표적인 노래로서 농경과 어로생활을 생업으로 삼는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을 생생히 반영하고, 동서고금의 노동요 가운데서 가장 대표

21) 이창식, 2002, 『한국의 유희민요』, 집문당. p. 21.

적·보편적·원시적 양상을 띠는 노래이다. 이에 두 민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노동요의 가치와 여성 의식이 파악되리라 사료된다.

제Ⅲ장에서는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의 사설 각 편(version)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세계에 대한 의식, 자연에 대한 의식, 제도에 대한 의식,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의식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의 사설 각 편(version)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교육적으로 계승하고 학생들에게 내면화·체화할 수 있는 수업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 노동요에 대한 가치 연구는 물론, 문화전승 교육과 가치관 교육, 그리고 이에 대한 활용 자료 확보와 맥을 함께 한다. 이를 위해 활용할 자료는 현장론적 조사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서 唱者, 주석 등을 밝혀 기존 현지조사 연구서 중 가장 뛰어나다는 정평을 받고 있는 김영돈의 <제주도 민요연구 上> (서울 : 일조각, 1965)에 나온 <맷돌·방아노래> 815수와 <해녀노래> 199수의 각 편(version)들을 텍스트로 삼는다.

아울러 제주 노동요의 사설 표기는 인용되는 자료의 문헌에 수록된 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사설은 표준어로 해석하고, 동시에 난해한 제주 어휘는 주석을 붙인다.

II. 제주도 노동요의 개관

1. 제주도 노동요의 형성 배경

민요는 그것이 불리어지는 지역의 민중의식을 그대로 집약하여 표현한다. 민요는 죽어 시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오늘날의 민중을 규율하고 고무하며 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요라는 프리즘을 통해 오늘날 민중들의 생활 일체를 투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의식을 분석할 수 있다.

제주도 민요는 제주도과 제주 도민의 삶의 축도이다. 제주도라는 특수한 지리적·역사적 상황 속에서 제주도 선인들의 삶은 척박한 땅과 모진 바람만큼이나 혹독한 시련과 눈물로 점철된 날들이었다.

三姓神話의 歷史人들이 창생의 陽地를 마련했던 농경시대를 지나 신라, 일본, 몽고, 당나라와의 統朝시대를 거쳐 오면서 매서운 자연 환경과 혹독한 외세의 침략역사가 몇 세기를 통해 제주 도민의 가슴을 멍으로 물들게 했다.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을 나열해 보면, 고려시대 삼별초 난을 필두로 몽고의 침략과 전후 1세기에 거친 몽고의 통치, 목호의 난, 왜구의 끊임없는 침투, 선교사의 입도, 방성철의 난²²⁾, 이재수의 난²³⁾ 그리고 이조 목관들의 무자비한 수탈행위, 해녀들의 반일 항쟁, 일제말기의 한반도 사수를 위한 일본군의 결전 기지, 감격의 해방과 더불어 세기적인 4·3 민중항쟁, 6·25동란으로 인한 제2훈련소, 4·19, 5·16의 역사적 격동과 시련 등이 있다.

또, 실질적으로 제주 도민을 이중삼중으로 시달리게 했던 일들로 토호의 횡포, 중앙정부 및 관리들의 등쌀과 수탈²⁴⁾, 공물마련과 공물운송의 어려움, 혹심한 부역들

22) 호포(가구별 세금)와 환상(환곡·봄에 빌려준 곡식을 가을에 반납하는 제도)의 과도한 징수가 원인이 되어 1898년에 일어난 민중항쟁.

23) 1901년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천주교도의 행패에 맞서 관노 이재수와 오대현이 이끈 민란.

24) 조선시대를 통틀어 290여명의 목사들과 400여명이 넘는 대정·정의현감들이 제주를 다스렸는데 이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가림주구의 폭정을 일삼았다.(윤치부, 1992, 「제주 민요의 낙원상실 모티프」, p. 4)

이 거론되어질 수 있다. 環海天險의 섬인데다가 강풍·호우·산재가 덮치고 근본이 되는 의식주의 해결이 지극히 어려운 지리적·자연적 환경의 불리에다 피압과 쓰라린 역사가 겹쳐 제주도민들은 그야말로 눈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와 토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고 그 수탈이 극렬했는가 함은 세종때 제주찰방 金爲民이 조정에 올린 官僚積弊 10개 항목 속에 드러나 있다.²⁵⁾

- ① 토호가 양민을 강점하여 ‘奉足’을 삼고 제멋대로 노예처럼 사역하는 폐.
- ② 6, 7월 농번기에 獐鹿皮를 얻어 진상하기 위해 오랜기간 농민을 田獵의 물잇군으로 혹사하면서 농작에 失時케 하는 폐.
- ③ 민가의 감귤을 官占하는 폐.
- ④ 대처승도의 폐
- ⑤ 교수관·교유·검률 등의 謀利行爲의 폐.
- ⑥ 향리의 직을 전리가 전임하는 폐.
- ⑦ 불필요한 각종 토관제로 인한 폐.
- ⑧ 양가의 여식을 ‘遊女’라 기장하고 관비처럼 부리는 폐.
- ⑨ 권호가가 빈농의 밭에 함부로 마소를 방목하는 폐.
- ⑩ 進繕 進馬時에 私物·私馬를 挾帶하는 폐.

제주도의 역사는 술한 공납에 시달리는 역사였다. 제주 도민은 신라를 받들어 ‘耽羅’라는 국호까지 받았었는데, 그후 백제를 섬겼을 때 탐라국이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동성왕이 정벌군을 이끌고 武珍州(現 光州)에 이르자 국주가 이를 듣고 사자를 보내어 사과하자 철군했다는 기록²⁶⁾도 전한다.

제주 도민의 종주국에 대한 공납은 삼국시대와 고려조를 거쳐 조선조에 이를수록 더욱 가중된다. 『世宗實錄』 권151 「지리지」 등에 기록된 土貢品目を 들여다보면 말·전복·굴을 비롯하여 비자·비자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 속해 있다. 전복만 하더라도 전복·인포·추포·수포 등 각양이며, 굴에는 감굴·유자·유감·통찰굴·금굴·산굴 등 가지가지가 들어 있다. 오징어·옥돔·다시마 등 어조류와 진

홍형만, 1991, 「濟州 牧使에 관한 序說」, 『濟州道史研究』 창간호, 濟州道史研究會.

25) 『世宗實錄』 卷36, 9年 6月條.

26) 東城王 二十年 庚申 以耽羅不修職貢 親征至武珍州(今 光州) 其主聞之 遣使乞 罪乃止 (李元鎮, 『耽羅志』, 建置沿革條.)

피·반하 등 술한 약재 및 녹용 등도 끼어 있다. 도민들은 공납을 위해 종주가 바뀔 때마다 시달려 왔으며 그들의 생활은 의식주를 간신히 해결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외에는 貢賦와 賦役을 위해 살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強貢에 따른 시달림의 참상을 잘 집약한 문헌으로는 제주 목사를 지낸 바 있었던 李衡祥(1653-1733)의 『耽羅狀啓』와 『南宦博物』에 잘 나타나 있다.

진상 공헌에 시달리다 지쳐 심지어는 감귤나무에 끓는 물을 부어 枯死시키는 예가 있었는가 하면, 말 수천 필을 가졌던 정의사람 김만익은 갖은 방법으로 가혹한 진상이 강요되자 준마가 멸종될까 두려워 일부러 그 눈에 상처를 내어 소경말을 만들거나 가죽과 귀를 찢어 종마를 삼았을 지경이었다.

이처럼 공물을 마련하는 어려움만도 지난한데, 이를 서울로 나르는 괴로움 또한 생사를 건 싸움이였다. 더구나 진상선의 침몰로 수많은 제주 장정들이 수중고혼이 되어 버리는 애처로운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맷돌·방아노래> 등 노동요의 후렴이나 가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여도’²⁷⁾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여도’는 제주도 西南海中 중국으로 가는 선로에 있다는 섬으로 제주도 진상선이 중국으로 가던 도중, 이 섬 주변의 거센 파도로 난파되는 일이 흔했다고 전해진다. 제주도민들은 수중고혼이 되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장정들이 이 섬에 편안히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다. 이리므로 열 명의 男兒을 낳아도 입적자는 한둘이었으며 여아로 가입적하는 예가 흔했다. 이처럼 삶이 쓰라리며 그 괴로움이 노역보다 더하였기 때문에 제주도 전역에 걸쳐 남정들이 육지 또는 일본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자가 썩 많았다²⁸⁾고 한다.

그러기에 제주 바다는 제주 도민들에게 친숙한 일터이면서도 진상선, 어로선을 삼키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세차게 물러드는 물결은 토호, 관리, 조정, 원·명, 왜구 등 이중삼중으로 도민을 핏줄어 뜯는 외세의 상징이기도 했다.

27) 제주 여인에게 있어 이여도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제주도에 대한 또 하나의 제주도였음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윤치부, 1992, 「제주 민요의 낙원상실 모티프」, 제주문화.)

제주 사람들은 이여도를 간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이여도를 지향하는 것으로 제주에 살아남기 위해 제주도-이여도-제주도의 往相回向·還相回向의 자기 환원을 삶의 형이상학으로 만들어낸 것이다.(고은, 1976, 『제주도』, 일지사.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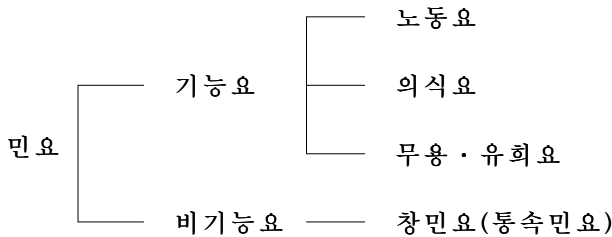
28) 이원진, 1653. 『耽羅志』, 奴隸條.

‘女多男少’라고 잘 알려졌듯이 제주 여성들은 일상 생업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남녀 구별없이 舊規에 따라서 주민연령이 10세 이상이면 記籍, 瑤役이 맡겨졌다. 또, 제주 여성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침략의 격동기에 혹독하게 동원되어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자 단순히 가정을 지키는 데에서 벗어나 생활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게 된다. 이는 女多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이로부터 ‘女多의 섬’이 연원하게 된다. 게다가 사면이 바다라는 조건 때문에 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은 바다에서의 작업을 위주로 하는 海中作業이 창안되기에 이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많게 된 까닭은 제주에서 진상하는 공물의 양이 매우 많았고 관원들은 공사를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으므로 남성들은 그 일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가 하면, 익사하여 열이면 둘셋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대의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은 상대적으로 제주도민의 아픔이면서 더욱 직접적으로는 제주 여성의 눈물과 인고로 점철된 뼈아픈 현실을 낳았으며, 그들의 생활을 오직 생존을 위한 自彊不息의 몸부림이 되게 했다.

2. 제주도 노동요의 분류

민요 분류에 대한 선행작업들은 많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유형이 아직 마련된 바 없으며 민요가 지니는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민요 분류는 손쉬운 작업이 아닌 듯하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각적인 민요분류 방법들이 제창²⁹⁾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유형이 노동요라는 점에서 보면, 제주도 민요의 대부분이 노동요라는 사실은 제주도 민요의 우수성을 드러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제주 도민들은 모진 환경과 역사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며 실로 옹골찬 삶을 꾸려 나갔으며, 이러한 삶의 반영이 노동요에 전적으로 투영되었다고 보아진다. 이것을 감안하여 本考에서는 그 기능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자 한다.³⁰⁾



먼저, 기능요 중에서 제주도 노동요를 제주 농어민의 생업구조 및 민요구연 여부와 실태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

29) 고정욱 『조선민요연구』: ①내용 ②가창자의 성·연령 ③가창되는 지역 ④노래의 시대성 ⑤노래와 민족생활의 결합면 ⑥노래의 형태 ⑦곡조 또는 명칭 ⑧장단 ⑨성립조건 ⑩운율 ⑪표현상 경향

임동권 『한국민요집』: ①가창자의 연령 ②주제 및 내용 ③가창과정

장덕순 『구비문학개론』: 기능 위주의 분류

30) 김영돈, 1992, 『제주 민요의 배경과 분류』,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p. 9

【표1】 제주도 노동요 일람 31)

(작업전승 : ○-현재전승 △-사라져 감 ×-사라짐)

| 분류 | 노래의 종류 | 현지의 민요 명칭 | 구연자 | 구연장소 | 작업전승 |
|--------|------------|---------------------------------|-----|--------|------|
| 농업요 | 따비질노래 | 따비질 소리 | 남 | 밭 | △ |
| | 밭가는노래 | 밭가는 소리 | 남 | 밭 | ○ |
| | 흙덩이바수는노래 | 흙병에 두드리는 소리 | 공 | 밭 | △ |
| | 밭밟는노래 | 곰배질 소리 | 공 | 밭 | △ |
| | 김매는노래 | 밭볼리는 소리 | 여 | 밭 | ○ |
| | 밭매는노래 | 검질매는 소리·사디 | 여 | 밭 | △ |
| | 타작노래 | 마당질소리·도깨질소리 | 공 | 마당·밭 | × |
| | 보리훅는노래 | 보리 훅트는 소리 | 공 | 마당 | △ |
| 마소모는노래 | 므쉬 므는 소리 | 공 | 길 | ○ | |
| 제분요 | 맷돌·방아노래 | ㄴ랫놀래· ㄴ래ㄴ는 소리 방엿놀래· 남방엿짙는 소리 | 여 | 집안 | × |
| | 연자매 노래 | 몰방에(몰ㄴ래)짙는 소리 | 공 | 연자맷 간 | × |
| 어업요 | 해너노래 | 해너(질)노래· 줌수(질)소리· 줌너(질) 소리 | 여 | 바다 | ○ |
| | 벳노래 | 베짖는 소리· 네짖는 소리 | 남 | 바다 | ○ |
| | 벳목짖는 노래 | 테우(테위· 테베)짖는 소리 | 공 | 바다 | △ |
| | 멸치후리는 노래 | 멜후리는 소리· 멜후립소리 | 공 | 바다 | △ |
| 벌목요 | 나무베는 노래 | 낭끈치는 소리 | 남 | 수풀 | △ |
| | 나무켜는 노래 | 날싸는 소리· 톱질소리 | 남 | 집안·수풀 | △ |
| | 나무 쪼개는 노래 | 낭개는 소리· 낭개는 도치질 소리 | 남 | 마당·수풀 | △ |
| | 나무 내리는 노래 | 낭끗어 내리우는 소리· 솔기소리 | 남 | 수풀·길 | × |
| | 풀베는 노래 | 출 비는 소리· 출 비는 흥애기 | 공 | 풀밭 | △ |
| 관망요 | 양태노래 | 양태 못는 소리· 양태 줄는 소리 | 여 | 집안 | △ |
| | 탕근노래 | 탕근 못는 소리· 탕근 줄는 소리 | 여 | 집안 | × |
| | 망건노래 | 맹긴(망근)못는 소리· 맹긴(망근)줄는 소리 | 여 | 집안 | × |
| 잡역요 | 방앗돌 굴리는 노래 | 몰방엿돌(몰ㄴ랫돌)끗어내리우는 소리 | 남 | 길 | × |
| | 토불미노래 | 토불미질 소리· 청탁불미질 소리 | 남 | 불미마당 | × |
| | 디딤불미노래 | 디딤불미질 소리· 발관불미질 소리 | 남 | 불미마당 | × |
| | 똑다불미노래 | 똑따불미질 소리 | 남 | 대장간 | × |
| | 집줄농는노래 | 집줄농는 소리 | 남 | 마당 길가 | △ |
| | 짚두드리는 노래 | 짚 두드리는 소리 | 남 | 집안 | △ |
| | 흙이기는 노래 | 질뜨림 소리 | 남 | 그릇굽는 곳 | × |
| | 집터다지는 노래 | 집터다지는 소리 | 남 | 집터 | × |
| | 베틀노래 | 베클 소리 | 여 | 집 | × |

31) 김영돈, 1983, 『제주도 민요연구』, 조약돌.

의식요로는 장례의식요만이 뚜렷하며, <행상노래>, <달구질노래>, <진토굿노래> 등이 전해지고 있다. 무용·유희요에 대해서는 제주도 민요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비기능요인 창민요로서는 널리 알려진 <오돌또기>를 비롯하여 <이야흥>, <봉지가>, <산천초목>, <사거리>, <서우젓 소리>, <관덕정앞>, <용천검> 등이 전승된다.

3. 제주도 노동요의 특성과 위상

제주도는 민요의 보고다. 제주 민요에는 제주 도민의 삶의 실정과 생각들이 진솔하게 배어 있으며, 제주도의 지리·역사·사회·생업·문화·민속·풍토가 특수하기 때문에 제주 민요는 꼭 가멸차고 오묘하게 전승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노동요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수집의 각도나 주안점에 따라 편수의 차이가 다소 있겠지만, 제주도 민요에서의 노동요 비중은 4/5를 차지한다.³²⁾ 많은 민요들의 출발이 노동요에서 비롯되었음을 볼 때 제주도 민요는 대부분 본원적인 노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요가 이처럼 절대적인 이유는 제주도의 지리·역사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四面環海의 제주도는 예전부터 땅이 거칠고 도민들이 가난했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중첩되는 역사적 특수 여건으로 인해 노동의 종류와 양이 많았고 이에 따라 도민들이 근면하였다.

가창자로 보아서 타 지역의 노동요에 비해 여성에 의한 민요가 압도적이다.³³⁾ 노동요를 기준으로 볼 때 남요, 여요, 남녀 공동요로 분류·대비한다면 그 민요 종류로 본 비중은 차이가 별로 없으나 민요 편수의 집계에 따르면 남요 대 여요의 비율은 약 1 대 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주도 여성의 활동력이 현저하고 근면하다는 점, 제주도의 특수한 생활구조로 말미암아 전국에서도 유별나게 맷돌·방아작업이나 해녀작업이 예로부터 성행해 왔으므로 이에 따라 양질로 놀라운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가 여성들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는 점, 땅이 거칠고 도민의 가난한 생활로 여성들이 관여해야 할 노동의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

32) 제주도교육연구원, 1984, 『옛 제주의 민속·풍속·민요』, p. 105-106

33) 제주도교육연구원, 앞의 책, p. 106

다는 점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또 제주도의 민요에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제주도에에서만 전승되는 민요들이 많다.³⁴⁾ 노동요의 예만 든다 하더라도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비롯하여 <밭밟는 노래>, <탕건노래>, <망건노래>, <양태노래>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선 제주도만이 지니는 특이한 생활구조에 그 첫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맷돌·방아노래>는 타 지역에서도 간혹 찾아볼 수 있으나 제주도처럼 본격적으로 전승되는 곳은 없다. <해녀노래> 또한 제주도 노동요에서처럼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곳이 드물다. 해녀가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 정도인데 일본의 해녀들도 작업과 더불어 가끔 민요를 부르기는 하지만 일본 해녀노래는 아직 독립된 장르를 이룩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화산회토로 말미암아 좁쌀을 뿌리고 난 다음, 밭을 밟는 일이 국내 다른 곳에서는 그 유래가 없으므로 <밭밟는 노래>역시 제주도에에서만 전해진다. <양태노래>, <망건노래>, <탕건노래> 등 관망요도 제주도 특유의 민요이다.

제주도에는 무용·유희요가 타 지역에 비해 덜 전승되며, 특히 情戀謠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도 제주 도민의 생활상과 관련되는 특징이다.

그밖에 제주도 민요의 경우, 세계 민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유난히 여성 노동요의 사설이 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맷돌·방아노래>에 나타나는 사설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또 성읍지역의 민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 민요의 일부 사설은 그 문학적 가치가 두드러진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제주도 노동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의 사설내용에는 婦謠에서 다루어지는 생활에서의 느낌 등이 아주 많은 비중을 두고 다뤄지고 있다. 생활고·자립·근면·애정·가사·가족·꿈과 소망 등이 진솔하면서도 소박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통해 제주도 노동요가 지니는 폭넓은 제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와 평가가 요청된다고 본다.

34) 제주도교육연구원, 앞의 책, p. 106-107

3-1. <맷돌 · 방아노래>의 특성

3-1-1. 기능적 특성

<맷돌 · 방아노래>는 제주도 노동요의 핵심이자 제주도 민요의 핵심이다. 제주도 민요는 질 높고 분량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맷돌 · 방아노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수성이 입증된다.

<맷돌 · 방아노래>는 ‘ㄱ래(ㄱ래)’, 곧 맷돌을 갈며 부르는 <맷돌노래>와 제주 특유의 ‘남방에’라는 절구를 찼으면서 부르는 <방아노래>를 합친 이름이다. 작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락이야 물론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사실 각 편은 맷돌질과 더불어 <맷돌노래>로, 방아질과 더불어 <방아노래>로 불린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지표는 수량이 적어 조, 보리, 잡곡을 위주로 한 밭농사 중심의 생활을 해왔다. 보리는 일차 연자매(물방에 · 물ㄱ래)에서 찼고 난 다음, 그 보리쌀을 맷돌에서 쪼개어야 일상 밥을 지어먹는 데 편리하므로, 맷돌질은 제주도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철 집안일이 되는 셈이다. 보리쌀을 쪼개는 일 이외에 온갖 곡식을 가는 데에도 맷돌은 쓰였다. 이 맷돌질은 마당이나 ‘삼방(대청 마루)’에서 한들이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큰일을 치를 때쯤에는 여럿이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손잡이에 1.5m가량이 나무 자루로 된 ‘ㄱ래체경³⁵⁾을 끼워 돌리기도 했다. ‘ㄱ래’와 함께 집집마다 제주 특유의 절구인 ‘남방에’를 두었다. ‘남방에’란 ‘나무방아’의 제주 방언인데 그 직경이 무려 120cm 내외에 이르는 느티나무 등의 통나무를 파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제사밥을 올리는 제기 비슷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방아질은 ‘방앗귀’라는 절구공이로써 혼자 아니면 너댓이 작업하는데, 방아 찼는 사람 수효에 따라 ‘두콜방에’, ‘식콜방에’ 등으로 불린다. 대문이 달린, 이른바 ‘이문간’에 놓인 채 작업하는 것이 보통인데 장만하기에 간편한 발벼 따위를 찼거나 훑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부르는 <맷돌 · 방아노래> 사설이 웅골차고 술한 까닭³⁶⁾은

35) ‘ㄱ래체경’이란, 1.5m가량의 나무자루로서 머리에 뚫린 구멍으로 맷돌 손잡이를 끼우고 오랜 시간 맷돌질을 할때 작업을 돕는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36) 김영돈, 1983, 『제주 민요연구』, 조약돌, p. 35

첫째, 멧돌 갈고 방아 찧는 일이 집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연관된다. 거친 바다나 들판에서 이뤄지는 일에 비해 훨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편안히 노래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고, 많아야 두셋이 하는 일이므로 침착하게 안정된 상황에서 멧돌을 벗삼아 마음껏 가다듬어진 사설을 숙고, 감상하며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혼자 부르는 노래는 서민의 내면세계를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셋째, 작업하는 시간이 길고 작업을 자주해야 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보리쌀을 쪄내는 일을 비롯해서 콩, 팥, 녹두, 메밀, 밭벼, 깨, 밀 따위를 멧돌이나 남방에에 찧거나 뿜고 갈아야 했다. 따라서 제주도 농가에서 거의 날마다 했던 멧돌질이나 방아질은 대체로 상당한 시간 이어져 나갔었다.

오늘날 제주도의 <멧돌·방아노래>는 멧돌·방아 작업은 이미 사라지고 노래만 남겨졌다. 이처럼 노동요가 노동을 수반하지 않을 때에 민요의 자연적 전승은 있을 수 없다.³⁷⁾ 따라서 자연조건에 따른 구연이란 아예 있을 수 없으며, 인위조건에 따라야만 들을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요의 배경인 작업분포가 원래 전면적이냐 국지적이냐에 따라서 그 전승에 차이가 있고, 그 작업의 소멸시기가 전승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³⁸⁾

<멧돌·방아노래>의 분포는 제주도 전역에 이른다. 멧돌·방아작업 자체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도 어디서나 사철 집집마다 이루어졌던 일거리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된 바 술한 노동요의 전형적인 것이 <멧돌·방아노래>이다.

<멧돌·방아노래>의 전승자는 멧돌질이나 방아질의 주체인 여성들이다. 민요의 체록을 통해 가끔 남성들이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어쩌다 큰일을 치를 때 아니면 남성들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지만 부인들의 노래 소리에 자신들도 모르는 새 익혀지기 때문이다. 제주도 민요의 가창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부요의 우수성은 제주도 민요의 강조할 만한 특색이라는 것은 앞에 언급한 바가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7) 김영돈은 『제주도민요연구』에서 노동요의 사활여부에 대해 작업과 민요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①작업과 민요가 모두 현전될 뿐더러 이 둘이 밀착된 경우 ②작업과 민요가 모두 현전되기는 하되, 이 둘이 분리된 경우 ③작업은 이미 사라졌고 민요만 남은 경우 ④작업은 남아있되 민요는 사라진 경우로 상정하고 있다.

38) 김영돈, 앞의 책, p. 36

3-1-2. 형식적 특성

| | |
|------|-------|
|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본디즈낙 | 어둡는집의 |
| 오늘이엿 | 붉은때하라 |
| 어둡경은 | 밤이엿말라 |
| 밤도아니 | 어두워러라 |
|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語譯>

| | |
|-------|---------|
|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본디저녁 | 어둡는 집에 |
| 오늘이라고 | 밝은 때 하라 |
| 어둡거든 | 밤이라 말라 |
| 밤도 아니 | 어두워러라 |
|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위의 노래처럼 <맷돌·방아노래>의 형식은 4·5조의 2음보, 1행씩의 4행이면서 2행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전형이다. 2행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본디즈낙 어둡는집의 / 오늘이엿 붉은때하라」에 맞서 「어둡경은 밤이엿말라 / 밤도아니 어두워러라」가 대구를 이룬다는 뜻이다. 제주도에서 가장 흔히 불려지는 노동요인 <ㄱ래ㄱ는소리>와 <남방에짙는소리> 역시 2음보격의 율격을 구성하는 것은 맷돌을 돌리거나 방에귀를 들었다가 내리찍는 동작의 규칙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음보격은 일상적인 호흡으로 동작을 맞추어 나가는 데 가장 적절한 형태임을 의미한다.³⁹⁾

| | |
|------|-------|
|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이여ㄱ래 | 고들베굴랑 |
| 즈낙이나 | 붉은때하라 |

39) 강동학 외, 2000,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우리어멍 날날적원
 전생긋언 구월에나난
 국화꽃도 나벗을삼앙
 우는 것은 눈물이로고나

<語譯>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맷돌 자꾸 갈아서
 저녁이나 밝은 때 하라
 우리 어머니 나를 낳을 적엔
 전생 곶게 나를 낳은 어머니
 팔자 곶언 구월에 나리
 국화꽃도 제 벗을 삼아
 우는 것은 눈물이로구나

<맷돌·방아노래>는 대부분이 독창으로 부르는데, 이는 맷돌질의 경우 본디 혼자하는 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독창으로 불리는 노래는 후렴없이 대체로 전승되어온 사실을 가창하면서 새로운 자작 사실을 첨가하기도 한다. 독창의 민요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실보다는 신세타령이나 생활의 고통, 개인적 소망 등 창자 개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기능이 강한 사실이거나 또는 이야기 구조를 갖춘 서사체의 사실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 노동요 가운데서도 다른 노래의 창법과 구분되는 점이다. 아울러 가창방식에 따른 몇 가지 형태의 선후창과 교환창이 있다.

A.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본디즈낙 어둡는집의
 오늘이엿 붉은때흐라
 어둡경은 밤이엿말라
 밤도아니 어두워러라
 B.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위 노래는 A가 선창을 하면 B는 후렴만 받는 선후창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후렴을 선창자가 함께 부르기도 하는데, 평균 4행으로 된 한편의 민요가 불러진 다음에 반드시 후렴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후렴없이 그대로 다음 편의 사실이 이어 불러질 때도 많다. 독창이 후렴이 없는 민요를 부르는 보편적인 창법이라면, 선후창은 후렴이 있는 민요를 부르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선후창은 가창 집단의 인적 구성이 다수를 이루는 노동과 의식, 놀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식이다. 먼저 한 사람의 뛰어난 가창 능력을 지닌 선소리꾼이 사실을 메기면 이어서 연행 현장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노래마다 정해진 고유의 후렴을 받으면서 부르는 방식이다.

A. 본디즈낙 어둡는집의

B. 본디즈낙 어둡는집의

A. 오늘이엿 붉은때하라

B. 오늘이엿 붉은때하라

선창하는 A의 사실을 B가 그대로 이어받아 되풀이하는 형태의 교환창 형식이다. A가 부를 때 B는 쉬고, B가 부를 때 A는 쉰다. 상황에 따라 흥을 돋우기 위한 추임새처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혹은 「으흠으흠」하고 흥얼거리기도 한다. 이처럼 교환창은 둘 이상의 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번갈아가면서 사실을 주고 받으며 부르는 방식이다. 창자의 인적 구성은 多:多, 多:1, 1:多, 1:1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교환창 방식에 대해 나운영은 교환창은 제주 민요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가창방식이라고 하고, 그 방식을 앞소리 사실을 따라 부르기, 앞소리 사실을 이어받아 부르기, 앞소리와 별개의 사실 부르기, 뒷소리로 교창하기 등 네가지를 제시하였다.⁴⁰⁾

김대행은 제주도 노동요의 창법 중 교환창의 경우 현저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래 동기와 관련지어 교환창의 유형을 이어받기, 반복하기, 각각하기, 논평하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어받기는 대화의 원리, 반복하기는 동화의 원리, 각각하기는 독백의 원리, 논평하기는 교감의 원리로 교환창의 특이성을 살핀 바 있다.⁴¹⁾

40) 나운영, 1972, 『제주도 민요의 작곡학적 연구(1)』, 연세논총 제9집.

그러면서 이 교환창의 네가지 원리를 통해 제주도 노동요의 민요론적 가치를 해명하였다. 바로 공동 작업의 일체감을 지향하되, 개인의 개별성을 사상해 버리지 않은 역동적인 긴장감이 제주도 노동요 전체에 드러난다고 하였다.⁴²⁾

대부분의 민요가 그렇듯이 <맷돌·방아노래>의 각 편을 부르는 순서는 일정하지 않다. 다만 부르는 사설의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어휘의 연상작용에 따라서 다음 편의 민요를 상기하고 불러 나가는 연결에 따르는 병행체가 작용되는 경우가 가끔 보인다.

3-2. <해녀노래>의 특성

3-2-1. 기능적 특성

<해녀노래>는 예로부터 세계 어디서든 전승되는 <맷노래>의 일종이지만 제주도에선 본격적으로 전승된다. 이는 ‘해녀’라는 특수한 집단이 해녀작업을 하기 위해 오갈 때에 배의 노를 저으며 역동적으로 부르는 민요에서 기원한다.⁴³⁾ 또, 제주도 해녀들의 초인적인 투지와 기백 또한 해녀노래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제주도는 많은 마을이 바닷가를 둘러가며 웅기종기 들어서 있고, 이 해안 마을에는 많은 적든 간에 사시사철 물질하는 해녀들이 산다. 해녀들이 작업하러 나갈 때에는 그 연안의 지형에 따라 해엄처 나가거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하는데, 해엄처 나가 작업을 하는 경우를 ‘굿물질’이라 하며,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를 ‘맷물질’이라 한다. <해녀노래>는 주로 ‘맷물질’할 때 노를 저으면서 노를 젓는 동작에 맞춰 구연한다.

<해녀노래>를 현지에서는 <해녀노래>, <해녀 밧노래>, <해녀질 노래>, <해녀질 소리>, <해녀질 흐는 소리>, <좁녀(네)질 소리>, <좁수 소리>, <좁수질 소리>, <물질흐는 소리>, <네젓는 소리>, <네젓는 해녀 밧노래> 등으로 일컫는다.

41) 김대행, 1999, 「노동요가 들려주는 민요론」, 『노래와 시의 세계』, 도서출판 역락.

42) 김대행, 위의 책, p. 145-164.

43) 일본의 많은 민요집을 보면, 가끔 <해녀노래> 비슷한 ‘海苔採節’, ‘鮑取唄’, ‘海女唄’가 보이는 것은 하나 제주도의 <해녀노래>처럼 작업차 배 타 나갈때, 노저으며 부르는 경우는 없는 듯하니,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에서만 전승된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해녀노래>는 양적·질적으로 제주도 민요 중에서 <맷돌·방아노래> 다음의 위치를 차지한다. <맷돌·방아노래>와 비교해 보면 노래하는 장소가 과도 이 배위에서 노를 젓는 동작에 맞춰지고 달리는 배에서 부르니 불안정한 분위기를 띠며, 혼자서 노를 젓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적어도 둘 이상의 여러 명이 함께 노를 저으며 노래하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지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상황일 수 없는 관계로 <맷돌·방아노래>의 그것에 비하여 덜 가다듬어진다. 또, 노래하는 시간이나 기회가 <맷돌·방아노래>처럼 자주 오랫동안 되풀이 되지 않는다.

<해녀노래>는 <맷돌·방아노래>와는 달리 제주도 해안 마을 이르는 곳마다 그 작업이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그 전승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업상황과 노래의 분리 시기가 오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채록이 수월하다. 하지만 근래 들어 해녀수가 나날이 줄고⁴⁴⁾ 구체적인 가창 주체인 해녀들의 노 젓는 일도 거의 사라진 지금에서 원 노래 그대로 기억하고 전승하는 이들은 드물다. 사실 분량이 <맷돌·방아노래>에 미치지 못하고 구연하는 작업상황이 불안정하며 유동적 사설이 고정적 사설과 더불어 상당량 끼어들기 때문에 원 노래의 복원은 지난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3-2-2. 형식적 특성

<해녀노래>는 주로 낚시거루나 돛배를 타고 물질 오갈 때, 해녀들 여럿이 노를 저으면서 구연되는 노래였다. 특히 제주도 연안으로 출가할 때 불렀었다. <해녀노래>의 음수율은 4·4조가 주류를 이룬다.

요어깁 농앗다근

논을사카 밧을사카

놀릴데로 놀려보자

<語譯>

요 어깨를 농앗다가

44) 2005년 현재 5,545명이며, 50세 이상이 4,827명(87.1%)으로 구성되어 있다.(제주도어업종사자 현황, 『제주도 수산현황』)

눈을 살까 밭을 살까
놀릴 대로 놀려 보자

이러한 특징은 노를 젓는 노동 상황과 직결되어 음수율 역시 단순한 반복이 주를 이루며 직설적이며 역동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또한 두 명 이상이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녀노래> 역시 선후창을 하거나 교환창을 하는 게 일반적이며 독창하는 경우는 드물다. 독창이 대부분인 <맷돌·방아노래>와는 이 점에서 대비된다.

- A. 이여싸 이여싸
B. 이여싸 이여싸
- A. 요넬것고 어덜가리
B. 이여싸 이여싸
- A. 진도바당 혼골로가른 이여싸
B.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나
- A. 혼착손에 빗창취곡
B. 이여싸 이여싸
- A. 혼착손에 테왁을취영
B. 이여싸나헛 이여싸
- A. 혼질두질 들어간보난
B. 어기여차 이여도싸나
- A. 저성도가 분맹헛다
B. 이여도싸나

A와 B가 번갈아 가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구연되는 선후창 형식의 위 노래는 4행의 각 편이 끝나고 후렴이 따르는 <맷돌·방아노래>와는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선후창에서 선창자는 사설을 선택하면서 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때문에 선창자는 많은 사설을 기억하고 있어야 선창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선창자는 기억하고 있는 전승사설을 노래할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사설을 지어 부를 수도 있으며, 다른 노래에서 전승사설을 차용해 올 수도 있다. 다만, 노래의 율격에 맞기만 하면 어떤 사설도 무방하다. 그만큼 사설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다. 선후창에서 후렴은 일반적으로 가락을 조절하는 조율적 기능과 선창자에게는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에 부를 사설을 생각해 내는 시간을 주고, 후창자에게는 사설의 이해를 돕고 음미하는 시간을 준다는 휴식적, 감상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사설을 부르는 선창자의 흥을 돋우어 주는 역할을 한다. 후렴을 흥겹게 받아 부르는 것은 선창자의 노래에 호응하는 것이고, 이는 곧 선창자가 다음 사설을 신명나게 부를 수 있게 한다. 선창자가 얻은 신명은 다시 후창자에게 전달되어 노래하는 즐거움은 한층 고조되며 일하는 현장은 즐거운 놀이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일꾼들은 노래를 통해 노동의 고통을 위로받게 되며, 신명 속에 노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노래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선후창 방식의 노래에는 반드시 후렴이 따른다.⁴⁵⁾

- | | | |
|----|-------|-------|
| A. | 이여사나 | 이여사나 |
| B. | 이여도사나 | 이여사나 |
| A. | 이여사나 | 이여사나 |
| B. | 므루므루 | 흔므루만 |
| A. | 요만지면 | 얼마나가리 |
| B. | 지고가자 | 매고가자 |
| A. | 진도바당 | 흔골소로 |
| B. | 이여도사나 | 이여도사나 |

45) 강동학, 1996, 「민요 후렴의 현장론적 이해」,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인식』, 집문당.

- A. 가나보자 요밴드레
 B. 가면은 가고요
 A. 끊어지면 인천항구
 B. 말면은 말았겠지
 A. 지름줄이 없을소냐
 B. 저님을 실고야
 A. 요내상착 부러지면
 B. 내가가리 말이나
 A. 부산항구 곧은남이
 B. 이어도사나 이어싸나
 A. 없을소냐 이어사나

A의 가창 사설

- | | | |
|------|-------|----------------|
| 이어사나 | 이어사나 | <語譯> 이어사나 이어사나 |
| 요만지면 | 얼마나가리 | 요만 저으면 얼마나 갈까 |
| 진도바당 | 훈골소로 | 진도바다 한글로 |
| 가나보자 | 요밴드레 | 가나보자 요 노끈 |
| 끊어지면 | 인천항구 | 끊어지면 인천항구 |
| 지름줄이 | 없을소냐 | 기름줄이 없겠는가 |
| 요내상착 | 부러지면요 | 노의 상책 부러지면 |
| 부산항구 | 곧은남이 | 부산항구에 곧은 나무가 |
| 없을소냐 | 이어사나 | 없겠느냐 이어사나 |

B의 가창 사설

- | | | |
|-------|-------|-----------------|
| 므루므루 | 훈므루만 | <語譯> 마루마루 한 마루만 |
| 지고가자 | 매고가자 | 저어가자 매어가자 |
| 이어도사나 | 이어도사나 |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
| 가면은 | 가고요 | 가면은 가고요 |
| 말면은 | 말았겠지 | 말면 말았겠지 |

| | | |
|-------|------|------------|
| 저님을 | 실고야 | 저 입을 신고야 |
| 내가가리 | 말이나 | 내가 가리 말이나 |
| 이여도사나 | 이여싸나 | 이여도사나 이어싸나 |

이 노래는 <네젓는 소리>로 두 해녀가 교환창으로 부른 사설이다. 타 지역으로 출가물질 경험이 많기에 구연하는 사설이 풍부했는데, 두 해녀가 부른 사설은 곧 각자의 생활경험과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공동창이면서도 개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독특한 사설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의 사설에 구애됨이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유연하게 각자의 사설을 구성해 내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공동창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창방식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노동요에 흔히 발견되는 특징으로, 이는 제주도 민요의 주된 가창자를 이루고 있는 여성들이 평소 생활현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면서도 자기 독자성을 잃지 않으려는 주체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해녀노래>의 각 편은 노동요의 모든 종류가 그렇듯이 그 불리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 각 편이 제각기 독립되어 있어 가창자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노래를 이어나가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해녀노래>는 노를 젓는 동작에 맞추어 생동감있게 구연했다. 노래를 힘차게 부를 때 일제히 규칙적인 동작으로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가 하면, 노를 젓기가 훨씬 편해지고 사설내용에 도취된 채 스스로를 고무하고 격려하게 된다. 곧 음악적 율동이 사설에 결들여지기 때문에 해녀들은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노를 저어가는 사이에, 노를 젓기는 한결 즐겁고 가벼워지며 그들은 건강하고 절실한 삶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다. 노동요는 이처럼 지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노동을 치르며 구연에 참여하는 청중들에게 發興과 助興, 그리고 審美的 快樂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뚜렷이 보여준다.

Ⅲ.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에 나타난 여성 의식

1. <맷돌·방아노래>에 나타난 여성 의식

<맷돌·방아노래> 사설의 제재 및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전승자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실정과 고뇌, 의욕과 염원을 두루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노동요의 70%가 넘는 이 노래는 즉, 농어민의 생활 전반에 걸친 그들의 심정을 심층적으로 노래하며 제주도 민요의 양적·질적 우수성에 공헌을 하고 있다.

참고로 <맷돌·방아노래>에 대한 사설의 분류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맷돌·방아노래>의 분류⁴⁶⁾

(*괄호 안 숫자는 編數)

- ① 맷돌노래(18)
- ② 방아노래(25)
- ③ 자립·자강의 노래(74)
 - 자립(28) · 근면(24) · 생활고(22)
- ④ 八字·恨歎의 노래(121)
 - 팔자(50) · 한탄(71)
- ⑤ 사랑과 怨恨의 노래(166)
 - 아버지 사랑(35) · 어머니의 사랑(35) · 형제사랑 (11) · 자식사랑(6)
 - 이웃과의 사랑(7) · 임사랑(40) · 원망과 저주(32)
- ⑥ 시집살이 노래(96)
 - 시집살이의 고충(25) · 시집에서의 학대(7) · 시집으로 가는 길(7)
 - 시집 가족(25) · 시누이(5) · 시어머니(16) · 시집관(11)
- ⑦ 집안 노래(117)
 - 결혼(30) · 주부(11) · 의붓어머니(12) · 첩(15)
 - 과부(6) · 자식(17) · 외로움(18) · 시앗(8)

46) 김영돈, 1965, 『제주도민요연구 上』, 일조각.

⑧ 經世의 노래(57)

· 경세(18) · 세정(13) · 말쌩(14) · 탄로(12)

⑨ 꿈의 노래(87)

· 꿈(16) · 서울(16) · 양반(6) · 선비(8) · 중용(16) · 자위(6) · 발산(19)

⑩ 신앙·풍토의 노래(54)

· 신앙(7) · 풍토(47)

위의 분류를 통해 <맷돌·방아노래> 속에 제주 도민들의 생활 실상과 의식이 핵심적으로 응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숙명을 통탄하면서도 자립, 근면하여 고난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줄기차고 부모 형제의 사랑, 이웃과 임과의 애증이 사설된다. <시집살이 노래>가 <맷돌·방아노래>의 가락으로 가창되며 결혼·부부·계모·첩·시앗·과부·자식·고독 등 부요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정서가 <맷돌·방아노래>에서도 제재화되고 있다. 세정을 질시하면서 경계하기도 하고 지난날 역사적으로 모질게 짓눌려온 양반 관리와 서울을 원망하면서도 실정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면서 안분지족으로써 자궁 또한 잊지 않는다. 민간신앙을 노래하고 제주도내 곳곳의 풍토를 제재화하기도 한다.

앞에서 제시했던 제주도 노동요의 사실내용 분석을 통한 통계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⁴⁷⁾을 알 수 있다.

첫째, <맷돌·방아노래>는 제주도의 다른 노동요들과 비교할 때 민간의 정의를 노래하는 편수의 비율이 상당히 많고, 작업 실태를 노래하는 편수의 비율이 매우 적다. 이것은 <맷돌·방아노래>의 우수성 및 제주도 민요 전반의 값어치를 보장해주는 그 바탕이 된다.

둘째, 제주도 노동요를 통해 도민들의 일상적인 느낌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제재인 자립·근면·시집살이·가사·가족·경세·신앙·풍토 등은 거의가 <맷돌·방아노래>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노동요의 사실내용 분석은 <맷돌·방아노래>의 분석으로써 큰 틀이 이루어진다 해도 좋을 것이다. 인간의 일상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민요의 편수가 <맷돌·방아노래>에 87%나 나타나는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47) 김영돈, 앞의 책, p. 48-49.

<멧돌·방아노래> 각 편에서, 일하며 노래하는 그들은 생산의 희열과 예술적인 쾌감을 동시에 즐기며 자기 동일성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노래의 사설 각 편은 민요가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임을 말해주며, 이미 사장된 화석이 아니라 살아있어 모진 고난을 참아 이겨내며 오늘날 풍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이룩한, 가장 깊숙한 자리에 감추어진 저력이 밑받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 노래는 제주 여성의 특유한 존재양식과 심층의식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고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1-1. 세계에 대한 의식 - <좋은 좋은...> 등의 노래

| | |
|----------|---------|
| 1) 좋은 좋은 | 술나경 먹영 |
| 노피 치돌앙 | 재 우의 앓앙 |
| 나도 갈 섬이 | 어디라니 |
| <語譯> | |
| 좋은 좋은 | 술나거든 먹어 |
| 높이 치달아 | 재위에 앓아 |
| 나도 갈 섬이 | 어디더냐 |

| | |
|---------|--------|
| 2) 좁쌀로랑 | 저고리 짓곡 |
| 피쌀로랑 | 동전을 놓앙 |
| 곰이 웃언 | 서월을 가난 |
| 조지 곰도 | 생겨라 혼다 |
| <語譯> | |
| 좁쌀로는 | 저고리짓고 |
| 피쌀로는 | 동정을 놓아 |
| 고름이 없어 | 서울을 가니 |
| 자주 고름도 | 생기더란다 |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環海孤島이다. 이러한 섬의 제약은 그대로 지

난 날 제주 여성들의 삶의 한계였으므로 1)에는 이곳에서 벗어나 보려는 이상이 보인다. 모진 환경과 일만이 존재하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좋디 좋은 술도 마시며 호사로움도 느껴보고 자유를 한껏 구가해 보고 싶어하는 제주 여성들의 진솔한 면모가 높은 재위에 앉아 다른 섬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현실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섬도 괜찮다. 이곳보다 더한 곳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다른 섬을 지향하게 된다. 즉, 노동만이 있는 현실적인 삶에서 벗어남의 언어 기제를 취한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며 노래를 통해 대리 적응을 얻기도 한다.⁴⁸⁾

2)에서 좁쌀과 피쌀은 제주 도민의 실정을 반영한다. 좁쌀과 피쌀로 저고리와 동정은 어떻게 만들었지만 고름까지 마련할 길은 없다. 그대로 서울로 가보니 자주색 고름이 생기더라는 내용은 제주 도민의 실상과 제주 여성의 회원이 담겨져 있다. 제주 도민의 주곡은 조와 보리, 잡곡인데 쌀에 비해 시세가 없어 제주도 내에서만 맴돌 뿐 바다 밖으로 팔려나갈 요소가 없다. 좁쌀은 제주 도민 특히, 제주 여성의 실상과 숙명을 표상했다. 좁쌀을 통해 자신들의 역경과 고달픔을 투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억눌리고 제약된 환경은 제주 여성들로 하여금 육지를 꿈꾸게 했다. 제주 노동요에는 유난히 서울을 갈망하는 노래가 많다. 제주 여성에게 ‘서울’은 동경의 세계이다. 가난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풍요와 행복의 장소이다. 노래에도 나타나듯이 서울을 가니 제주도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자주 고름이 생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서울로 대표되는 육지를 그리는 것으로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그네들의 사고를 잘 반영해 준다.

| | |
|----------|--------|
| 3) 간장 썩은 | 물이어마는 |
| 숫아올랑 | 눈으로 난다 |
| 이내 눈물 | 흘러가난 |
| 바당물은 | 가득암저 |
| ㄱ랑밭밭 | 쇠빗밭로 |

48) 좌혜경, 2000, 「제주 여성과 민요」,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p. 152.

| | |
|-------|--------|
| 나 눈물은 | 흘러가도 |
| 안개산이 | 안 걸어간다 |
| 창창 맑은 | 하늘님아 |
| 이 안개나 | 걸어줍서 |
| <語譯> | |
| 간장 썩은 | 물이네마는 |
| 솟아올라 | 눈으로 난다 |
| 이내 눈물 | 흘러가니 |
| 바닷물은 | 가득어진다 |
| 가랑땃발 | 쇠땃발로 |
| 내 눈물은 | 흘러가도 |
| 안개는 | 안걸어간다 |
| 창창맑은 | 하느님아 |
| 이 안개나 | 걸어주오 |

3)에는 속이 상해서 간장의 썩은 물이 눈으로 올라와 눈물이 되었다고 전제한 후, 이것이 흘러서 바닷물이 가득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눈물 흘릴 일이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가 오면 당연히 걸혀져야 할 안개가 이렇게 울고 있는 데도 걸혀지지 않으니 절대자인 하느님에게 안개가 걸려지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절대자에게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현실에서의 고통과 힘듦을 전생, 눈물, 한숨 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절대자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절대자에게 기원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어려움을 타개하려 애를 써 보지만 주어진 환경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숙명적인 문제일 터이다. 이처럼 제주 여성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실체는 개개인의 힘으로 풀기 힘든, 제도적이고 숙명적인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제주 노동요에는 다른 지방보다 비극적인 정서를 지닌 노래가 많다. 삶의 신산함에서 오는 진솔한 반영의 결과이다. 그러나 비극적인 내용의 노래 이면에는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주 여성들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고가 자리하여 현실 도피가 아닌

도전을 가능케 하는 기능이 있다.⁴⁹⁾

1-2. 자연에 대한 의식 - <하늘 곁론...> 등의 노래

| | |
|-----------|----------|
| 1) 하늘 곁론 | 대낭이시명 |
| 부모 곁론 | 즈식이시라 |
| 시냇물은 | 흘러나가도 |
| 산광절벽 | 그데로잇나 |
| <語譯> | |
| 하늘 미치는 | 대나무가 있으며 |
| 부모 미치는 | 자식이 있으나 |
| 시냇물은 | 흘러나가도 |
| 산과 절벽은 | 그대로 있다 |
| 2) 임도 갈 제 | 싱거랜 배낭 |
| 갓 꾀베도 올안 | 먹어나 본다 |
| 배도 올안 | 먹어나 본다 |
| 입은 어디 | 간곳이 웃언 |
| <語譯> | |
| 임도 갈 제 | 심은 배나무 |
| 햇배가 열어 | 먹어나 본다 |
| 배도 열어 | 먹어나 본다 |
| 입은 어디 | 간 곳이 없어 |

자연의 질서와 운행은 항상 변함이 없다.四季의 순환이 늘 반복적이며 주기적이다. 인간들의 삶과 자연의 법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행과 불행이 교차되는가 하면 성공과 좌절이 반복되면서 쉽게 변하고 변화무쌍하다. 하늘은 인간에게 지혜를

49) 김도훈, 1999, 「제주 민요<맷돌노래>에 나타난 서정성 연구:恨 motif를 위주로」, 서강대 석사논문.

준 대신 기복없는 운명을 허락지 않았다.

이렇듯 자연의 순조로운 질서와는 원칙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인간은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마음의 평정과 안식을 얻고자 할 때 종종 자연현상과 자신의 삶을 견주면서 자연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이 여러 민요나 전통시가에 등장한다. 1)에는 하늘이 늘 같은 곳에 있으면서 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부모의 존재가 이에 대응하여 그려지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비교·대조의 관계에서 늘 관계성이 나타난다. 자연이 항상성을 유지하듯이 부모의 존재 또한 다른 인간들과는 대조적으로 늘 한결같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대구의 묘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2)에는 자연은 恒常을 유지하나 인간사는 늘 가변적이며 기복이 심하다. 특히 인간(임)의 마음은 불변하는 자연과는 늘 대조적으로 너무 쉽게 변하고 이에 따른 고통은 너무 크다. 일상적인 소재인 배나무의 생태를 통해 자연의 변함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거부감없이 임의 가변성에 대한 원망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제주 여성들은 이를 통해 신세한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자신의 시름과 근심을 털어버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개척의지를 보인다. 자연은 이처럼 자신들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가장 가깝고 친숙한 제재로 등장한다.

| | |
|----------|---------|
| 3) 울명 들를 | 아기도 웃다 |
| 앗앙 들를 | 어명도 웃다 |
| 저 산뒤에 | 흙불로 가도 |
| 가시 웨엔 | 걸릴 배 웃다 |
| <語譯> | |
| 울며 따를 | 아기도 없다 |
| 앉아 따를 | 어머니도 없다 |
| 저 산 뒤에 | 함부로 가도 |
| 가시 외엔 | 걸릴 바 없다 |

| | |
|----------|---------|
| 4) 낭도 물도 | 웃인 섬이라나 |
| 나도 가민 | 물 지여 온다 |
| 나도 가민 | 낭 지여 온다 |

<語譯>

| | |
|--------|----------|
| 나무도 물도 | 없는 섬이더나 |
| 나도 가면 | 물 지어 온다 |
| 나도 가면 | 나무 지어 온다 |

3)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기구하여 의지할 혈육 하나 없는 환경에서 자연은 선망의 대상이나 단지 경외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현장이며 생계의 배경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제주 여성에게는 ‘가시외에는 걸릴 바 없(다)’을 정도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장소로 인식할 뿐이다. 4)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척박한 섬일지라도 내 힘으로 물과 나무를 마련하여 의식주를 해결해 보겠다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다른 지방의 노동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설의 내용으로, 제주 여성들이 근원적으로 삶에 대해 지니고 있는 남성 못지않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 여성에게 자연은 늘 가깝고 친숙한 대상으로 인식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제도에 대한 의식 - <나어명은...> 등의 노래

| | |
|---------|---------|
| 1) 나어명은 | 그리는 애기 |
| 놈은 주난 | 종으로 민다 |
| 놈의 종에 | 난 일도 서꾼 |
| 일름이란 | 불르도 말라 |

<語譯>

| | |
|--------|---------|
| 내 어머니는 | 그리는 아기 |
| 남은 주니 | 종으로 민다 |
| 남의 종에 | 난 일도 쉼어 |

이름일랑 부르지도 말라

2) 감제 유제 먹을때 썸엔
 메늘 애기 웃이민 호당
 보리 방에 물서꺼 놓으난
 메늘 애기 비차락 줘라
 <語譯>
 고구마 유자 먹을 때 썸엔
 며느리 아가 없으면 하다가
 보리 방아 물섞어 놓으니
 며느리 아가 빗자루 주더라

결혼제도와 그에 얽힌 관계들을 노래하고 있다. 흔히들 한국 민요의 정수를 <시집살이 노래>⁵⁰⁾라 보기도 한다. 제주도 민요에서는 대개 <시집살이 노래>가 <맷돌·방아노래> 속에 섞이어 불린다. 이처럼 제주 지방에서는 시집살이 노래가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불리면서 기능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시집살이 노래>는 전국 어디를 불문하고 구성은 비슷한 성향을 띤다. 남편, 시댁식구, 수면, 생활고, 이별 등을 대상으로 삼았고, 내용에 있어서는 순종, 타협, 반항, 상사와 원망, 동경과 공상 등으로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시집살이의 고민을 노래한다. 제주도 민요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집살이의 쓰라림을 표현한 것이 <시집살이 노래> 전반의 40%가 넘는다. 여인이 시집갈 적에는 행복하려고 가는 것이나, 막상 시집을 가고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여인들을 괴롭혀 눈물 속에 세월을 보내게 된다. 1)에서도 살펴 보듯이 친정 어머니야 자신을 애지중지하지만 시집살이는 남의 종살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며 자신에 대한 숙명과 그 고충을 드러낸다. 더구나 타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밭일과 집안일, 바다일을 홀로 감당하면서 겪는 제주 여성의 삶은 종살이에 비교되고도 남음이 있다. 종살이와 같은 생활에서 나의 존재를 부각하는 이

50) 부요 중에서도 <시집살이 노래>의 고뇌를 비롯하여 ‘母女愛戀歌’의 깊은 정, ‘童女歌’의 純情味는 단연 한국구방문학의 정화라 한 것이다.(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p. 488-489)

름을 부르게 되면 자존감에 더한 상처를 받을까하여 이름조차 불리기를 꺼려하는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세심한 감정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의 존재이다. 없는 집에 먹을 게 생겨 먹을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한입이라도 덜어 우리 식구를 풍족히 먹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다. 이때 ‘우리 식구’에서 예외가 되는 존재가 ‘며느리’의 존재이다. 그리고 굶은 일, 하기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존재 또한 ‘며느리’이다. 반어적이고 모순적인 존재가 며느리인 것이다. 이런 존재인 며느리가 느끼는 ‘시어머니’의 존재는 실로 문학적으로 풍성하다. 제주도 노동요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함께 해학적 비유가 돋보인다. 이는 제주 여성의 재치와 위트가 결합된다. 시어머니를 ‘암퇘(암돼지)·호박·점복(전복)’에, 시아버지를 ‘구쟁기(소라)·수툫(수돼지)·장독(수탉)’에, 시누이를 ‘줄락(재빠르고 자그마한 물고기)·구살(섬게)·베록(벼룩)·고생이(용치놀래기)·중이(쥐)’에, 남편을 ‘몽개(문어)·술치(쭈기미)·문둥이’에 비유하고 있다. 具象的·日常的·可視的인 것을 끌어다가 즐겨 비유함으로써 그 등식의 긴장체계를 고조하며 그 歌義를 실감있게 즐긴다. 이것은 민요에서 흔히 보는 제재와 비유의 특성이기도 하다.

고된 시집살이로 말미암아 갖은 시달림과 슬픔에 쌓인 제주 여성들은 이런 해학으로 안정과 여유를 찾으려 했다.

| | |
|----------|--------|
| 3) 가지 실핀 | 질이엔 흥건 |
| 오옥밭디 | 질이나 나라 |
| 발 비여근 | 돌아나 오게 |

<語譯>

| | |
|--------|--------|
| 가지 싫은 | 길이라 하니 |
| 참억새 밭에 | 질이나 나라 |
| 발 베어서 | 돌아나 오게 |

| | |
|-----------|------------|
| 4) 요놈으 씨집 | 못살민 말쭈 |
| 넌뵈으로 | ㄹ레츄록 박아도 승 |
| 합체로 | 불 답아도 승 |

| | |
|--------|---------|
| 씨아방 | 정강이에서 |
| 늬물채 | 썰어도 송 |
| 씨아방 밥상 | 들러다 노명 |
| 똥꾸여도 | 송이곡 |
| 남죽에서 | 늬죽여도 송 |
| 이것도 송 | 저것도 송보난 |
| 요눔으 씨집 | 어떻 살리 |

<語譯>

| | |
|---------|----------|
| 요눔의 시집 | 못 살면 말지 |
| *냄뵤으로 | 맷손 박아도 흥 |
| **합체로 | 불 답아도 흥 |
| 시아버지 | 정강이에서 |
| 나물채 | 썰어도 흥 |
| 시아버지 밥상 | 들어다 놓으며 |
| 방귀꾸여도 | 흥이요 |
| 죽젓광이에서 | 이 죽여도 흥 |
| 요눔의 시집 | 어찌 살리 |

*술이나 감주를 따르는 배가 불룩하고 목이 기다란 하얀 병.

**액체를 걸러 내거나 가루를 치는 마소의 총으로 만든 가는 체.

제주 지방에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유교성과 반유교성의 혼재는 한국의 사회나 가정에 있어서 고민상과 더불어 현실과 이념, 인간과 제도 및 전통과 자유, 갈등 등의 여러 면이 나타나 있어 높은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⁵¹⁾

3)의 노래는 시집가기 싫은 심정을 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 <맷돌·방아노래>에 나타난 시집살이 노래에는 시집가는 것을 귀양살이, 종살이 하러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노래들이 있다. 아울러 ‘억새밭에 길이 나면 그 길로 돌아오겠다’라는 대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제주 민요 특유의

51) 김도훈, 「제주 민요 <맷돌노래>에 나타난 서정성 연구: 恨 motif를 위주로」, 서강대 석사논문, 1999.

환경이 있다. 이에는 제주도의 특이한 가족제도가 큰 몫을 한다. 제주도 가족제도의 가장 큰 특성은 철저한 분가원칙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제주도는 차남은 물론 장남까지도 혼인을 하면 분가하기⁵²⁾ 때문에 부모 식구와 아들 식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결과적으로 육지의 전통가족제도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시집 식구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불화나, 시누이 올케사이의 갈등이 제주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중심의 생활은 자연히 시어머니의 통제력이나 시누이의 시샘을 약화시키는 반면에 역으로 여자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전도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은 위와 같은 노래로 형상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에서도 나타나듯이 제주도에서는 출가를 한 이상 죽어도 시집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경외감이나 신성함보다는 오히려 남편과의 헤어짐을 쉽게 생각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요놈의 시집 못 살면 말지”처럼 언제든지 그만두고 돌아가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만이 지니는 독특한 문화가 그대로 노래 속에 반영되어 전해짐을 알 수 있다.

1-4.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의식 - <전승 굿이...> 등의 노래

- | | |
|----------|----------|
| 1) 전승 굿이 | 날 낳은 어멍 |
| 시름이사 | 동서로 온덜 |
| 눈에 줌이 | 어딜로 오리 |
| <語譯> | |
| 전생 굿계 | 날 낳은 어머니 |
| 시름이야 | 동서로 온들 |
| 눈에 잠이 | 어디로 오리 |
| 2) 동지 설돌 | 지나진 밤의 |
| 삼은 삼이 | 발가슴이여 |

52) 이것은 부모에 대한 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주도의 영세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부모가 자신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발로 발반 가슴이라나

자로 재연 가슴이라라

<語譯>

동지 선달 기나긴 밤에

삼은 삼이 밭가웃이네

발로 밟아 가웃이더나

잘 제어 가웃이더라

3) 만물 중생 가운데

밥광 옷은 가락광 오락

귀훅곡 중헌 것은

우리 인생 뿐이구나

<語譯>

만물 중생 가운데

밥과 옷은 오락가락

귀하고 중한 것은

우리 인생 뿐이구나

제주 여성들은 밧돌·방아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어려움을 노래에 투영했다.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얘기치 못하는 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한을 그네들은 그대로 가슴 속에 삭히고 있다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 거의 독백조로 자신의 기구함을 나타내었다. 매일 거듭되는 술한 노동 속에서 그나마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이러니컬하지만 밧돌·방아작업 때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1)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의 고통을 실감하고 자신을 낳은 부모님마저 원망해 보지만 술한 일거리로 잠조차 자면 안된다는, 운명에의 체념이 아니라 운명과의 대결을 노래하는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느껴볼 수 있다. 제주 여성을 근면과 자립·성실로 이끌게 한 근원은 삶에의 집착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2)에는 이른 새벽부터 바다일과 밭일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깊은 밤 삼을 삼는, 실로 초인적인 근

면성이 잘 나타나 있다. 제주 여성의 자립과 근면성은 아마 세계적으로 독보적 존재일 것이다. 제주도의 지리적·역사적·사회적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제주 여성의 자발성 또한 이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본다. 제주도를 찾아들게 되면 외래인들은 누구나 밭과 들판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제주 여성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의 손이 거치지 않는 세심하고도 고된 작업들을 제주 여성들은 마다않고 자신의 의무인 양 감수해 왔다. 이들의 근면성은 그들에게 혹독하게 주어졌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침략의 격동기에 가혹하게 동원되고 공납의 폐단으로 인한 많은 희생으로 인하여 제주 여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타 지역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리만치 무겁고 실로 버거운 짐이었다. 이러한 삶의 고통을 노래를 통해 해소하며 작업에 전념하는 제주 여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 여성들은 자립과 삶에 대한 근면을 당연시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최고인 듯 지향하는 현실적인 사고관을 지니는 듯하나, 3)에서 파악되듯이 ‘밥과 옷’, ‘우리 인생’의 비교·대조를 통해, 밥이나 옷과 같은 물질적인 것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제주 여성들은 이를 통해 진정 귀한 것은 ‘우리 인생뿐이구나’라고 노래하여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맷돌·방아노래> 사설에 나타난 제주 여성 의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서울’로 대표되는 육지를 갈망하는 노래가 많았다. 이는 척박하고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제주 여성들의 사고를 잘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늘 자연은 인간과 대조적이지만 자연은 제주 여성들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가장 가깝고 친숙한 제재로 등장한다.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의 현장이며 생계의 배경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장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주 여성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의식으로는 맷돌·방아작업을 하면서 불러지는 시집살이 노래가 압도적이다. 고된 시집살이를 종살이로 비유하며 시댁과의 갈등을 해학적인 비유를 통해 극복하고 여유를 찾으려 했다. 또한, 제주도 가족제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철저한 분가원칙이 노래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인 역할

을 가중시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결혼제도에 대한 구속력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의식에서는 노래 곳곳에서 보여지는 제주 여성의 근면성에 초점을 두었다. 제주 여성에게 주어진 척박한 환경과 제도의 폐해를 초인적인 근면성으로 극복하려 했으며 이는 제주 여성을 자립과 근면성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쉽없이 살아왔지만 진정 소중한 것은 자신의 인생임을 자각하는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해녀노래>에 나타난 여성 의식

사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 태동한 <해녀노래>는 <맷돌·방아노래>와 함께 제주도 민요의 쌍벽을 이룬다. 제주 여성의 위대함을 잘 드러내 주는 자료로서 제주 여성의 삶과 함께 했던 바다를 무대로 한 <해녀노래>를 통해 제주 여성의 진중함과 개별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영돈에 의한 <해녀노래>사설의 제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3】 <해녀노래>의 제재⁵³⁾

| 제 재 | 제 재 분 류 | 편 수 | 비 율 |
|--------|------------|-----|------|
| 해녀작업출발 | 1. 배 타 나감 | 11 | 5.5 |
| | 2. 헤엄쳐 나감 | 5 | 2.5 |
| 해녀작업 | 1. 잠수작업 | 8 | 4.0 |
| | 2. 수산물 채집 | 12 | 6.0 |
| | 3. 고역·토로 | 9 | 4.5 |
| | 4. 탄로·무상 | 4 | 2.0 |
| | 5. 작업목적 | 5 | 2.5 |
| 해녀출가과정 | 1. 離鄉·출가 | 5 | 2.5 |
| | 2. 노젓는 기백 | 29 | 14.6 |
| | 3. 배와 뱃사공 | 9 | 4.5 |
| | 4. 출가하는 뱃길 | 15 | 7.5 |
| | 5. 출가의 목적 | 6 | 3.0 |
| 해녀출가생활 | | 19 | 9.6 |
| 애 정 | 1. 상사 | 16 | 8.1 |
| | 2. 연모 | 21 | 10.6 |
| 여 정 | 1. 신세토로 | 9 | 4.5 |
| | 2. 일상감정 | 16 | 8.1 |
| 계 | | 199 | 100 |

53) 김영돈, 2002, 『제주도 민요연구 하』, 민속원.

<해녀노래>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하나의 기능에 의해 유형⁵⁴⁾이 실현되고 있다. 여느 민요와 마찬가지로 <해녀노래>도 전승자의 구연과정에 재창작에 의한 변이가 허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변이형들도 개별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노래의 사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변성구⁵⁵⁾가 조사하여 제시한 노래 각 편(version)을 대상으로 공통되는 성격의 사설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내용을 주로 노래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요넬젓고 요넬젓고 어딜가리 진도바당 골로나가세
- (2) 흔착손에 테악을 심고 흔착손에 빗창을 심어
- (3) 흔질두질 들어간보난 저성도가 분맹하다
- (4) 요네곶댕 타령을 말라 원서중에 놀던네라
- (5) 요넛동아 저넛동아 브름통을 먹었더냐 지름통을 먹었더냐
- (6) 민첩하고 연첩흔놈 대턴바당 가운데들엉 맹지들밤 날새영가라
- (7) 눈이 붉은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우치명 뒷발로랑 므루나잡앙
- (8) 고동생복 여꿇딜로 득달하게 흥여줍서
- (9) 배똥알을 입을준덜 요네상작 남줄내가 아니로다
- (10) 스무남은 설남은적의 앞산남도 물레레간다 산돌맥들 물레레간다
- (11) 우리나라어명 날날적의 가시나무 몽고지에 손에꿍이 박으려고 날냥던가

위 의미단락을 제재별로 정리하면 (1)해녀작업 출발-(2)해녀작업 실상-(3)노젓는 기백-(4)노 젓는 바다 상황-(5)이별-(6)해녀작업 기원-(7)노 젓는 기백-(8)해녀작업 실상-(9)신세한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를 의미단락으로 크게 구분하여 보면 작업관련 사설과 해녀들의 일상적인 감정을 노래한 사설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해녀노래>들은 작업관련 사설의 비중이 높고 그 제재도 작업

54) 유형이란 용어는 각 편version의 공통된 구조, 내용 및 특징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유형은 창자나 청중들이 실제로 작품들을 유별해서 이해하는 단위로서 어떤 작품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 기여하는 단위이다.

55) 변성구, 2006, 「해녀노래의 사설과 유형구조」, 『한국언어문화』 제29집.

출발에서부터 출가물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해녀들의 노 젓는 작업이 바다에 떠있는 돛배라는 곳에서 가창이 이루어지는 만큼 가창 현장의 불안정성, 직접 노 젓는 작업을 하면서 부른다는 점, 위험한 해역을 건너가거나 물살이 거셀 경우 역세게 노를 저어야 하는 정황 등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할 여유를 갖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겠다.

사설의 내용에 입각하여 해녀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제주도 여성들에게 있어 바다는 밭이나 다름없는 삶의 일터이며, 바다에서 부딪히는 온갖 일은 집안일화한다. 그들의 작업장은 밭과 바다를 망라한다. 즉, 해녀들의 대부분이 농업을 겸한다. 그 겸업률이 99%에 이른다.

해녀질은 그대로 바다에 생명을 건 생업이다. 이들은 보통 수심 15-20피트에서 작업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70피트까지도 들어간다.⁵⁶⁾ 그리고 제주 해녀는 일단 물속에 잠기면 물속에서 평균 30초 정도는 머물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 2분 남짓 견딘다. 수심 깊이 들어가서 이처럼 오래 견딜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해녀질을 할 수 있는가 하면⁵⁷⁾ 한달 평균 15일 이상 작업할 수 있으며 분만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는 일 없이 분만 전날까지도 물질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실로 초인적이어서 제주 해녀를 세계적 존재로 이끈다.

제주 해녀들은 제주도 연안에서만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외국으로도 빈번하게 출가하였다. 한반도 연안을 위시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도 출가하여 작업을 했으며 출가시간은 6개월이 대부분이었다. 출가지에서의 생활은 몇몇씩 그곳 민가에 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한다. 출가지의 주민들과 비슷한 언동, 습속을 익혀 보호색을 마련하며, 20-30인이 한반을 이뤄 지내면서 반장을 둔다. 반장은 인솔자와의 연락 및 반원의 질병·사고·권익을 돌본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친 생계소득을 공급하는 등의 갖은 인고를 다 겪었다.⁵⁸⁾ 지난날의 제주 해녀들이 엄청난 해산물을 관가에 바칠 때에도 포악한 관리들에 의한 이중삼중의 부담을 치러야만 했음이 민요에도 반영되고 있다. 과중한 공

56) 제주대학, 1974, 『국문학보』 제6집. 제주대학국어국문학회. p. 169.

57) 홍석기·Hermann Rahn, 1967, "The Diving Woman of Korea and Japan".

58) 『조선왕조실록』, 이건의 『조선풍토기』, 조관빈의 『회헌집』, 신광수의 『제주잠녀가』 등의 선인들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남의 부역에서부터 해녀들의 고역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초인의 기개로 생업을 이어왔다. 해안에서 작업 전 왁자지껄 무리지어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율동에 맞춰 싱그럽게 노를 젓는 밝은 표정에서 해녀들의 현실극복의지와 함께 물질의 천고만난을 오히려 즐겁게 치르려는 현명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해녀 노래>와 함께 제주도 해녀들의 진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2-1. 세계에 대한 의식 - <전복 한 이여도...> 등의 노래

| | |
|---------|-------|
| 1) 전복 한 | 이여도 |
| 메역 한 | 이여도 |
| 점복이영 | 메역이영 |
| 하여당 | 우리 아들 |
| 공부시기키여 | 이여싸나 |
| 이여도가자 | 이여도 |

<語譯>

| | |
|--------|-------|
| 전복많은 | 이여도 |
| 미역많은 | 이여도 |
| 전복이랑 | 미역이랑 |
| 하여다가 | 우리 아들 |
| 공부시키런다 | 이여싸나 |
| 이여도가자 | 이여도 |

| | |
|---------|--------|
| 2) 성산포야 | 잘 이시라 |
| 멩년 이 철 | 춘삼월나민 |
| 살아시민 | 상봉이여 |
| 죽어지민 | 영 이벨이여 |

<語譯>

| | |
|------|-------|
| 성산포야 | 잘 있거라 |
|------|-------|

| | |
|--------|--------|
| 명년 이 철 | 춘삼월이면 |
| 살았으면 | 상봉이네 |
| 죽어지면 | 영 이별이네 |

1)에서는 제주 도민들의 삶의 터전인 섬 이외의 세계가 제시되고 있다. ‘이여도’는 제주 도민에게 있어 실로 중요한 개념이다.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비실재적 허구의 섬이라는 과학적 논증보다도 더 우선하는, 제주도민의 실정과 꿈이 아우러진 관념적 공간이다. 제주 도민들은 지척민빈한 삶의 터전 위에 고난의 역사를 겪음으로써, 이 苦海의 현실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풍요와 안락이 넘치는 낙원, 곧 정토가 열리리라는 소박한 소망을 지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四面環海의 제주 도민들로서는 비단 진상뿐이 아니라 어로, 상행위와 갖은 용무로 바다를 건너야할 일이 숭했다. 망망대해에 낙엽처럼 배를 타고 나갈 때에 세차고 사나운 파도에 직면함은 심각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잃기까지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은 칠혹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위안이라도 찾으려 애를 썼고 수중고혼이 된 이들이 머무는 또다른 세계를 상정하게 된다.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 속에 환상의 섬 ‘이여도’는 자리잡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 도민에게 이여도는 彼岸과 此岸의 경계다.⁵⁹⁾ 아울러 위 노래에서는 ‘이여도’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며 전복과 미역이 많은 희망의 섬으로 그리고 있다. 그 곳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아들을 공부시키겠다는 소박한 염원을 통해 아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를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대구와 반복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2)에서는 삶의 근거지인 제주도를 떠나 다른 세계로의 진출이 그려지고 있다. 성산포항에서 배를 타고 떠나면 다음 해 바로 지금의 계절 춘삼월에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도 또한 그때까지 타국에서 해녀생활을 하며 살아있으면 돌아올 수 있지만 만의 하나 죽음에 이를 경우 지금이 어찌면 영원한 이별이라는 비장한 감회가 느껴지는 노래이다. 누구 하나 자신의 출가를 배웅해 주는 사람 없이 해녀들끼리 무리를 지어 배를 타고 나가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아쉬움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막연함을 ‘성산포’라는 대상에 토로하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신들의 운

59) 김영돈, 1983, 『제주도민요연구 :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조약돌.

명을 애써 담담하게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제주 해녀들은 제주도 연안 뿐만 아니라 한반도 각 연안과 일본, 중국 심지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진출을 했다. 연약한 여인들로서 그 패기와 의지는 가히 놀랄만한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감수하면서 무려 5천여 명에 달하는 해녀들이 외지로 나가 보통 6개월 이상을 지내고 돌아온다. 하지만 그들의 힘든 작업을 통한 소득은 갖은 공납과 그에 따르는 폐단으로 삶의 현장에서 수차례의 억울함과 갖은 시련을 경험⁶⁰⁾하며 면면히 이어져 오게 된다. 실로 자강불패의 신념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들의 이러한 초인의 기개는 그네들의 모든 삶의 역경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생각하려는 현명한 지혜 또한 결부되어 파악될 수 있다.

2-2. 자연에 대한 의식-<몸짱으랑...>등의 노래

| | |
|---------|---------|
| 1) 몸짱으랑 | 집을 삼앙 |
| 늦고개랑 | 어명을 삼앙 |
| 요 바당에 | 날 살아시민 |
| 어느 바당 | 걸릴 웨 시랴 |

<語譯>

| | |
|---------|----------|
| *모자반덩일랑 | 집을 삼아 |
| **놀고깁랑 | 어머닐 삼아 |
| 요 바다에 | 내 살았으면 |
| 어느 바다 | 걸릴 리 있으랴 |

*해조류의 일종

**노도(怒濤). 거센 파도.

| | |
|----------|-------|
| 2) 너른 바당 | 앞을 재연 |
| 혼질 두질 | 들어가난 |

60) 제주 해녀들은 잠수 수탈에 대해 권익옹호를 위한 투쟁으로써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촉구하기도 하고, 해녀어업조합을 결성하여 그네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

| | |
|--------|--------|
| 홍합 대합 | 비쭉비쭉 |
| 미역귀가 | 너홀너홀 |
| 미역에만 | 정신들연 |
| 미역만 | 호단 보난 |
| 숨막히는 중 | 몰람고나 |
| <語譯> | |
| 너른 바다 | 앞을 재어 |
| 한길 두길 | 들어가니 |
| 홍합 대합 | 비쭉비쭉 |
| 미역귀가 | 너울너울 |
| 미역에만 | 몰두하여 |
| 미역만 | 채취하다보니 |
| 숨막히는 줄 | 모르는 구나 |

1)에서 살펴보듯이 바다는 제주 여성에게 있어 운명적인 생활공간이다.⁶¹⁾ 바다는 남편을 앓아간 원한의 공간이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바다는 제주 여성의 활동무대 일부에 불과하다. 내다보아도 둘러보아도 아득한 수평선만 보이는 거대한 바다에 제주 여성들은 몸을 던진다.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을 집을 삼고 거센 파도를 어머니처럼 인식하면서 이 바다에서 내가 굳건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바다가 내 삶에 방해가 되겠는가”라고 노래하며 거친 바다를 상대로 옹호한 기상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어느 남성 못지않은 자신이 처한 운명을 긍정적·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제주 여성들의 기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 여성들에게 바다는 발의 연장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제주 해녀들은 거의가 농업을 겸하며, 그 겸업률은 약 99%에 이른다. 그러므로 해녀들은 ‘물의 바다’와 ‘바다의 발’을 공유하게 된다.

2)에서는 창망한 바다를 대상으로 해산물을 캐는 작업에 몰두하는 제주 해녀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바다는 생계의 현장으로 해녀들의 경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 깊은 바다를 한 숨에 들어가면 눈앞에 펼쳐진 해산물을 두고 나오기

61) 신광수, 1770. 「潛女歌」, 『石北集』 권7, p. 24.

가 아쉽기만 하다. 하나하나 채취하는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숨막히는 줄도 모르겠더라는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로 생명을 건 생업이다. 풍부한 해산물을 캐느라 숨이 막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간명하게 표현하는 데에 묘미가 있다. 생계를 위한 해녀작업에 목숨까지도 불사한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음을 극명히 볼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한다.

사면이 바다라는 불리한 자연적 여건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제주 여성들은 이에 패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특유의 강인함이 그들 생활 전반에 흐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3. 제도에 대한 의식-〈산도 촌지...〉등의 노래

- | | |
|----------|---------|
| 1) 산도 촌지 | 물도 촌지 |
| 우리 조선 | 총독부 촌지 |
| 저레 가는 | 저 총각은 |
| 내 촌지여 | 내 촌지여 |
| <語譯> | |
| 산도 차지 | 물도 차지 |
| 우리 조선 | 총독부 차지 |
| 저리 가는 | 저 총각은 |
| 내 차지네 | 내 차지네 |
| 2) 줌녀질을 | 안 시기커경 |
| 요내몸을 | 들앙 가라 |
| 고동 생복 | 내가 실핀 |
| 줌녀질을 | 안 시킬 놈아 |
| 요내몸을 | 들앙 가라 |
| <語譯> | |
| 해녀질을 | 안 시키려면 |

| | |
|-------|---------|
| 요내 몸을 | 데려가라 |
| 고등 생복 | 내야 싫어 |
| 해녀질을 | 안 시킬 놈아 |
| 요내 몸을 | 데려가라 |

1)에서 살펴보듯이 제주 도민들에게 官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이는 서민문학의 일반적인 성격과도 연결이 된다. 중앙 정부의 술한 공납과 지방 관리의 수탈·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여 도민의 생활은 비통과 도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어로생활을 방해하는 왜구들을 방어해야 하고, 과중한 부역의 중첩된 고난 속에서 생활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시대를 겪으면서 “산과 물, 조선은 모두 총독부 차지”라고 하며 산과 물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일본 소유로 돌아간 현실을 풍자하여 일본에 의한 혹독한 착취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이중삼중고를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아울러 사랑에 있어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제주 여성들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물질적인 것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사랑과 같은 소중하면서도 정신적인 것은 쉽게 남의 것이 되게 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모든 것을 빼앗긴 현실 속에서도 정신적인 측면으로 위안을 받으려는 지혜로운 면모가 엿보이며 ‘총각 차지’로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여유로움과 삶의 기쁨을 찾고자 하는 제주 여성들의 정신적인 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면모가 대구의 묘미와 반복을 통한 강조로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2)에는 현실의 고통을 결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결혼을 통해 해녀작업을 하지 않고 물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보는 것이 제주 여성들의 현실적인 생각이며 소박한 소망이다. “고등, 생전복도 나는 싫어”라는 표현을 통해 늘 반복되는 해녀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주로 채취하는 해산물을 언급, 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진술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의식-<정든 님이사...>등의 노래

- | | |
|-----------|---------|
| 1) 정든 님이사 | 놈을 준덜 |
| 요 네착사 | 놈 주리아 |
| <語譯> | |
| 정든 임이야 | 남을 준들 |
| 요 노짜이야 | 남을 주라 |
| | |
| 2) 물로 뱅뱅 | 돌아진 섬에 |
| 삼시 굶영 | 물질혁영 |
| 훈푼두푼 | 버은금전 |
| 낭군님의 술값도 | 부족이여 |
| <語譯> | |
| 물로 뱅뱅 | 돌아진 섬에 |
| 삼시 굶으며 | 물질하여 |
| 한푼두푼 | 벌어들인 금전 |
| 낭군님의 술값도 | 부족이여 |
| | |
| 3) 이내 몸을 | 이몸을 아정 |
| 한강바다 | 띄와 농곡 |
| 쌀물들물에 | 띄와 농곡 |
| 흔질 두질 | 수지폰 물에 |
| 반송 반절 | 출입이라라 |
| 요 금전아 | 돈아 혁경 |
| 돈의 전체 | 아니문사 |
| 요런 고생 | 무사 흐리 |
| <語譯> | |
| 이내 몸을 | 이몸을 가져 |
| 한강 바다 | 띄워놓고 |

| | |
|-------|--------|
| 썰물밀물에 | 띄워놓고 |
| 한길 두길 | 깊은 물에 |
| 절반만큼 | 출입이더라 |
| 요 금전아 | 돈아 하거든 |
| 돈의 까닭 | 아니면야 |
| 요런 고생 | 어째하리 |

저절로 힘이 솟는 싱싱하고 생산적인 내용의 사설들을 통해 감정의 토로가 다분히 직설적이다. 1)에서 ‘네(노)’는 생활의 도구이자 삶의 밑천이다. “정든 임이야 남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요 노짝이야 남에게 빼앗기겠느냐”의 표현은 의문형을 사용하여 그 뜻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설의적 표현에는 사랑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에 생각해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현실중심의 사고가 반영된다. 생계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상황에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제주 여성들에게 사치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임보다 생활을 우선한 제주 여성들의 사고가 대유적인 표현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2)에서 파악되듯이 이처럼 생활력이 강한 제주 해녀들에게는 늘 고달픈 삶의 연속이다. 해녀작업을 아침에 시작하면 점심도 굶으면서 하루해를 꼬박 작업을 하고 나온다. 이러한 고생을 통해 모아둔 금전은 남편의 술값으로 부족하다는 고된 질곡의 삶을 토로하고 있다. 제주 속담에는 “해녀의 남편은 집에서 얘기나 본다”라는 내용이 전해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제주 남성들의 존재가 여성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대비되어지는 부분이다. 3)에는 제주 해녀의 현실적인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해녀작업에 따른 어려움과 힘들이 나타나며 출가를 하여 서울 인근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현실의 궁극적인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자위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돈의 까닭 아니면야 요런 고생 어째하리”라는 표현을 통해 노동에 대한 자각과 함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론 작업의 험난함을 칠성관을 지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작업에 임하는 해녀들의 일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신산한 생활이 여실히 노래에 반영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에서 다루었던 <해녀노래> 사설에 나타난 제주 여성 의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여도’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비실재적 허구의 섬이라는 과학적 논증보다 우선하는 개념으로 풍요와 안락이 넘치는 정토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바다에서 희생되는 숭한 생명들이 ‘이여도’라는 공간에서 머물기를 기원하며 彼岸과 此岸의 경계에 자리잡는다. 이는 제주 여성들의 環海孤島의 환경 속에 작은 위안이라도 삼고자 하는 마음의 응결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의식은 ‘바다’에 대한 자세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바다는 남편을 앓아간 원한의 공간이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제주 여성에게 바다는 운명적인 생활공간으로 인식되며 이런 거친 바다를 상대로 옹혼한 기상을 표출한다. 이는 여느 남성 못지않은 자세로, 자신이 처한 운명을 긍정적,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제주 여성의 기상을 찾아볼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의식으로는 노래 속에 나타난 官과 결혼제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주도민에게 官은 타 지역보다 더욱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중앙정부의 숭한 공납과 지방 관리의 횡포가 극심하여 도민의 생활은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에 노래를 통해 官을 풍자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측면은 官이 쉽게 앓아갈 수 없다고 노래하며 더욱 소중한 면을 부각시켜 위안을 삼는 지혜로운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삶이 어려울수록 인간은 일탈을 꿈꾸게 된다. 늘 반복되는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결혼제도를 통해 이뤄지기를 염원하며, 자신의 소망을 진솔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의식에는 현실중심의 사고가 반영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된 질곡의 삶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삶에 대한 애착, 강한 집념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하는 노동행위에 대한 자각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늘 자신을 독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제주도 노동요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를 통하여 나타난 제주 여성의 의식을 살펴 보았다.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에는 과다한 노동에 따르는 제주 여성들의 고통스러움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가창자 주변 인물과 관계된 노동의 원인, 노동행위, 노동의 한계상황들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노동의 원인들에 대해 공격적인 언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는데 이는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를 통해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들을 잠시 해소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하게 한다.

모든 의식은 개인 또는 사회 그룹 그들의 환경 사이에 잠정적이고 유동적으로 존

재하는 균형의 표현⁶²⁾이고 민요는 삶의 또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에 나타난 의식은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이 그러하다는 말과 같다. 또한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의 기저에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는 예부터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다고 하여 三多島라고 하는데 이 말을 잘 되새겨 보면 바람이 많다고 함은 기후조건이 좋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고 돌이 많다고 함은 토지조건이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다. 여자가 많다는 것은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 죽는 경우가 많아 남자들의 힘만으로는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자들이 일터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제주도의 실정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또한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다고 하여 三無라고 하는 것도 三多와의 관계 속에서 해명될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진다. 제주도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존속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자립이 불가피한 곳으로 도둑이나 거지가 발붙일 여지가 없었다. 또한 자연의 재해나 왜구의 침입이 잦아 공동의 적을 마을 사람들이 뭉쳐 막아내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마을사람들끼리 신뢰감과 협동심이 역시 깊어 대문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과 연관지어 제주도민, 특히 제주 여성들은 과다한 노동으로 놀이를 즐길 여가가 없었고 이를 통해 제주도 민요의 대부분이 노동요로 존재함이 분명해진다.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 두 노래로 대표되는 제주도 민요를 통해 주어진 자연·역사·사회 환경 등에 굴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 제주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環海孤島의 불리한 환경과 외세의 잦은 간섭에 제주 여성들에게 부과된 삶의 무게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대단한 것이었다. 비통·통한·숙명·인욕·인고와 절제·검소·절박·근검·불패·자립의 삶을 살아왔던 그네들을 통해 오늘의 제주도 존립근원의 힘을 찾을 수 있다.

여리디 여린 여성이 몸으로 그 누구 못지않은 정신적 무장으로 꺾꽂하게 삶을 지켜왔던 제주 여성들의 모습 앞에서 실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가장 깊숙한 자리에 불가사의한 저력으로 메마른 땅과 포효하는 바다와 맞서 오늘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제주도를 이룩한 제주 여성들의 ‘인고·불굴의식’과 ‘자강·역행의식’, ‘자주·안분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62) 루시앙 골드만, 1980, 『숨은 신』, 송기현·정과리 옮김, 인동.

IV. 제주도 노동요의 교육현장 활용방안

1. 국어교육에서의 민요교육 실태

민요는 우리 고유 문화의 근간이며 우리 문학의 원류이자 모태로써 아득한 옛날부터 끝없이 재창조되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생활을 대변하는 양식으로 존재되어 왔으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퇴색하거나 소멸되어 가고 있다. 민요의 계승과 발전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민요를 낡은 것이라 경원할 것이 아니라 현대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주체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민요 교육의 필요성은 나타난다. 현대는 개방화되고 세계화된 사회로 전 세계의 문화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혼합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서구 문화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사고방식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민족의식도 희박해지고 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 측면에서나 민족의식, 민족의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 민요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요는 향토 문화, 나아가 민족 문화의 원천이므로 외래문화 속에서 민족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구실을 한다. 기록문학은 스스로 발전되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비문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발전해 왔다. 민요에 나타난 현실인식 태도와 비판 정신은 우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지혜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대표 민요인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에는 다른 지방의 민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어진 환경에 맞서 끈끠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강인함과 불굴의 정신, 개척정신 등이 돋보이며 이는 물질만능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요소를 체화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요는 우리 문화의 지역적, 근원적인 모습을 찾게 하며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며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므로 민요의 교육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요는 국어교육에서 시가교육과 더불어 전통문화 교육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교육 현장을 보

면 국어교육의 일환으로서 민요교육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⁶³⁾

학교현장에서 민요교육이 소외된 근본적인 이유는, 구비문학이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의 장르에 비하여 연구와 교육의 역사가 짧은 데에 기인한다. 또한 민요는 구비문학의 장르 중 사설·가락·기능이 복합된 구연물이므로 문학·음악·민속으로서의 연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장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연구 성과물이 적고 이론화가 어렵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⁶⁴⁾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구비문학 작품과 민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중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구비문학 작품

| 교과서 | 대단원명 | 단원 구성 | 제 재 명 | 출 처 |
|-----|---------------|--------|-------------|--|
| 1-1 | 1. 문학의 즐거움 | 소단원(2) | 아버지의 유물 | 『한국문학총서』 (서대석 엮음, 해냄출판사, 1997) |
| | | 보충심화 | 자장노래 1, 2 | 『한국구비문학교육사』 (김기창, 집문당, 1992) |
| | 3. 문학과 의사 소통 | 보충심화 | 호랑이의 권세를 믿고 | 『아흔아홉의 지혜』 (조성기 엮음, 생각하는 백성, 1993) |
| 1-2 | 2. 문학의 아름다움 | 소단원(4) | 동명왕 신화 | 『한국의 대표설화』 (이만기 엮음, 빛샘출판사, 1994) |
| | | | 지네 장터 | 『구비문학』 (서대석 엮음, 해냄출판사, 1997) |
| | | | 우정의 길 | 『한국인의 민담』 (베스트북스, 1999) |
| 2-1 | 3. 우리고전의 맛과 멋 | 소단원(1) | 서동요 | 『삼국유사』 권 제2 |
| 2-2 | 2. 이야기의 구조 | 소단원(1) | 아기장수 우투리 | 『옛이야기 보따리 10』 (서정오 엮음, 보리, 1999) |
| | | 소단원(2) | 현명한 아내 만카 |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200 가지 이야기3』 (조안나 콜 엮음, 현대지성사, 1999) |

63) 중학교의 국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요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2차 교육과정기인 1966년에 간행된 『중학 국어』(3-1)에 『베를노래』와 5차 교육과정기인 1991년에 간행된 『중학 국어』(3-2)에 『이양요』, 6차 교육과정기에 간행된 『중학 국어』(1-2)에 『달노래』가 있을 뿐이다.

64) 변성구, 2004,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의 실태와 방향」,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 | | | | |
|-----|-----------------|--------|--------------------|---|
| | | 보충심화 | 원숭이와 거북 이야기 | 『칼릴라와 담나』 (이동은 옮김, 강, 1998) |
| | | 보충심화 | 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 | 『한국의 민담 설화시리즈 1』 (최래옥 엮음, 동흥문화사, 1991) |
| | | 보충심화 | 홍보가 | 박봉술의 <홍보가> |
| 3-1 | 5. 읽기와 매체 활용 | 보충심화 | 진도아리랑 | 『한국구비문학 총서3』 (서대석 엮음, 해냄출판사, 1997) |
| | | 보충심화 | 정선아리랑 | 『한국 구비문학 교육사』 (김기창, 집문당, 1992) |
| 3-2 | 1. 창조적 문학 체험 | 소단원(3) | 길잃은 태양 마차 |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옮김, 웅진닷컴, 2002) |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는 신화, 전설, 민담을 비롯하여 무가, 판소리, 민요 등 총 15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의 민요 1편 ‘달 노래’만이 수록된 것에 비하여 질적, 양적으로 놀라운 발전이다. 이러한 구비문학 작품 중에서 민요 수록 실태를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4편이 수록되어 이전 교육과정의 민요 수록 실태인 2차 교육과정기인 1966년에 간행된 『중학 국어』(3-1)에 『베를노래』와 5차 교육과정기인 1991년에 간행된 『중학 국어』(3-2)에 『이양요』, 6차 교육과정기에 간행된 『중학 국어』(1-2)에 『달 노래』에 비교하면 많은 진척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요학습을 위한 단원 설정에 의한 수록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학습활동에 따른 보충·심화 자료에 불과하다는 데에 아쉬움을 남긴다.

2. 제주도 노동요의 교육현장 활용방안

국어교육에서 민요와 설화 등 구비문학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국어교육을 풍성하게 하는 방안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기록문학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중들에 의해 구전되면서 오랜 세월 민중들의 삶과 함께 해 온 구비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논증하고 자료화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기록문학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해야 함이 시급하다.

지역 민요에는 삶의 현장성과 함께 문학성이 가미된 진중한 노래들이 산재해 있음을 볼 때 청소년들 특히, 제주도 학생인 경우 제주도에 많이 불려지고 제주도의 지역성을 드러내며 제주 여성들의 강인함과 환경에 맞서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등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노동요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서 국어교육에서 지역의 민요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지역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과서 편제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사가 국어교과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가능한 지역 민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 민요 자료를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보완하고 자료를 바꾸어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는 대체하며, 지역 민요를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원, 제재, 학습주제를 특설하여 교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구성은 제재의 보완, 대체만이 아니라 학습활동과제까지 보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선행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별 민요의 교육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민요자료의 발굴 및 정리가 요구된다. 지금껏 지역별 민요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가 많이 진척되었으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자료 검증은 미흡한 단계이다. 앞으로 민요교육론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화 교재를 제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교사나 학생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지역민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지역화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경험과 흥미 및 욕구, 그리고 능력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교육의 전문성 제고, 지역 사회 변화와 요구 수용, 지역 사회 자원의 활용, 학생들의 개인차 반영 등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둘째, 국어 교과서를 개편할 경우 지역 민요를 관련지어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학습활동 과제를 개발, 편성해야 한다. 이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1997년에 고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본 방향에 따라 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②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③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④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⁶⁵⁾고 한다. 따라서 각 학교는 시·도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각 교과별,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에서 단위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게 하였고, 교수 학습 방법의 선정과 시간표 운영도 학교의 특성과 교과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에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즉, 학습시간, 학습시기, 학습형태, 학습매체의 결정에 교사의 재량권이 존중된다. 예를 들면 “학생의 직접 체험 활동, 소그룹별 공동과제 해결 활동, 개별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선택한다, 고정적인 학습 시간 배당의 종래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배당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배열 순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 학교에서 학습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를 결정한다, 교과용 도서 외에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⁶⁶⁾는 등이다. 2007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⁶⁷⁾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방침 중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고 고시하여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스스로 만들어 가는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어교사들이 지역 민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관심·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역 민요는 학생들의 생활현장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관심을

65) 교육과정 편성·운영자료(I), 200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교육인적자원부.

66) 교육과정 편성·운영자료(I), 앞의 책, p. 114-115.

67) 교육과정 편성·운영자료(I), 2007,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교육인적자원부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흥미있는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민요의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의 경우는 제주 여성의 숨은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의 제주도를 있게 한, 가치있고 교육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아래아(·)표기가 살아있고, 특이한 어휘와 고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만큼 올바르게 인식하며 민요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민요를 활용한 국어교육은 제주도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정을 갖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길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3. 제주도 노동요의 수업 활용의 예

3-1. 교과서 수록 민요의 재구성을 통한 활용의 예

<중학교 국어 1-1>

대단원명: 1. 문학의 즐거움

학습목표: · 문학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 문학작품을 즐겨 읽을 수 있다.

<보충·심화>

1. 자장노래를 듣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노래를 부르듯이 다음 두 작품을 읽어 보자. 그리고 이 두 편의 자장노래를 참고하여 나의 자장노래를 지어 보자.

자장 노래 1

명명개야 짓지 마라.

꼬꼬닭아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칭얼칭얼 잠노래를

그쳤다가 또 하면서

쌔근쌔근 잘도 잔다.

(예산 지방)

자장 노래 2

자장자장 우리 애기

선녀같이 예쁜 애기

곶게 곶게 자는 방에

피(고양이)도 개도 아니 온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셋별같이 맑은 눈에

조랑조랑 맏히어라.

(강원도 고성 지방)

<재구성의 예>

1.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부르듯이 다음 두 작품을 읽어 보자. 그리고 두 작품을 참고하여 어머니가 불러 주시는 옛 노래를 채록하여 정리해 보자.
2. 어머니의 삶을 토대로 제주 지방 여성들의 삶을 상상하여 노래를 지어 보자.
3. 삼무·삼다도와 관련하여 제주 지방의 독특한 문화를 정리하고, 여성들의 삶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중학교 국어 3-1>

대단원명: 5. 읽기와 매체활용

학습목표: ·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 동일한 내용을 글로 읽을 때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해할 때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보충·심화>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진도 아리랑

아리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문경새재는 웬 고갯가.

넘어올 적 넘어갈 적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세월아 네월아 오고 가지를 마라.

아까운 이내 청춘 다 늙어 간다.

아리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한국 최남단 보배섬 진도

인심이 좋아서 살기가 좋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나) 정선 아리랑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정선의 구멍은 무릉도원 아니더냐.

무릉도원 간데 없고 산만 총총하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싸리골 을 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그리워 나는 못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1. 위의 우리 민요를 들어 보고, 그 감상을 간단히 써 보자.

- 진도 아리랑
- 정선 아리랑

2. 민요 가사를 글로 읽을 때와 노래로 직접 들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자.

| 글로 읽을 때 | 노래로 직접 들을 때 |
|---------|-------------|
| | |

<재구성의 예>

(가) 땃돌 노래

이 그레야 이 그레야

이내년의 간장 카뎡

스르릉 소리 제절로 나뎡

무큰무큰 믹심 석뎡

이 그레야 곶아 도라

이 그레야 이 그레야
 잇날 잇날 그잇날에
 어떤 사름 고운 돌 쉼 돌로
 췌기명 두드리명
 장도ㄴ찌 맹긴 그레
 이제 뉘난 이 그레로
 나영 혼디 늑어싱고라
 무사 이영 영도 무끼리

(나) 해녀 노래

날은 좋곡 청멍흔 날에
 이 네 짓영 어딜가코
 바당 물질 툄곡가게
 줌수질 흥명도
 고향생각 어떻흥코

1. 위의 우리 민요를 들어 보고, 그 감상을 간단히 써 보자.

- 멧돌 노래
- 해녀 노래

2. 민요 가사를 글로 읽을 때와 노래로 직접 들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자.

| 글로 읽을 때 | 노래로 직접 들을 때 |
|---------|-------------|
| | |

3. 위의 민요와 관련하여 제주도 여성들의 삶을 유추해 보자.

4-2. 수업을 통한 활용의 예

1) 제주도 노동요를 감상한 후 모방시 짓기 활동

| | | |
|----------|------------|--|
| 학습목표 | | <p>1. 제주도 노동요의 가사를 음미하며, 시적 화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모방시를 쓸 수 있다.</p> <p>2. 생활 민요나 마을의 유래·자랑을 담은 민요 등을 창작할 수 있다.</p> |
| 학습 활동 | 준비단계 |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의 가사를 소개한다. 그리고 그 민요의 가사가 어떤 느낌과 정서를 지니고 있는 지 파악하도록 한 후 또다른 지역의 민요를 소개하며 민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
| | 핵심찾기 단계 | 시와 민요의 차이점과 그 서술방식, 표현상의 특징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단계이다. 특히 시와는 달리 민요는 총체적인 모습(사실, 가락, 행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측면과 표현을 통한 삶의 정화작용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
| | 실제수업 단계 | <p>자료로 제공된 민요의 사설을 읽어 보거나 노래로 들려 줌으로써 민요란 누구나가 쉽게 가락을 살려 지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장르임을 깨닫게 한다.</p> <p>제주도 노동요의 형성 배경과 독특한 성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至難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제주 여성들의 입장이 되어 모방시를 짓게 한다. 그리고 난 뒤 실제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토대로 즉흥적인 민요를 창작하게 한다. 실제 수업단계에서는 가능한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난스러운 학생들의 즉흥적인 발언 또한 잘 껴 맞추면 참신한 작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전체 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또한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다.</p> |

| | |
|---------|---|
| 내면화 단계 | 자신이 시적 화자가 되어 민요를 감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을 거쳐 제주 노동요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의 풀리지 않는 감정들을 민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독려한다. |
| 기대되는 효과 |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민, 학교생활 등을 노동요의 형식을 빌어 표현함으로써 학습자의 말로 하기 힘든 고충을 음악적인 형식을 통해 발현, 해소되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이를 통해 노동요 가창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갖는다. |

2) <오돌또기>와 관련한 설화를 듣고 등장인물이 되어 민요 창작하기

| | |
|---|---|
| 학습목표 |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느낌과 감정을 민요로 대변하여 말할 수 있다. |
| 학습활동 | 다음의 배경 설화를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
| <p><배경설화></p> <p>아주 오랜 옛날 제주 섬의 어느 마을에 김복수라는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효자이면서 성품도 곧고 글공부에 열심인 그는 어머니와 동네 어른들의 권유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p> <p>복수가 떠나는 날, 바다는 하늘 빛 비단을 펼쳐 놓은 것처럼 잔잔했어요. 제주를 벗어날 즈음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와 배가 난파되었어요. 겨우 목숨을 건진 복수는 파도를 따라 흘러 다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복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는 어여쁜 처녀가 간호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임춘향이고, 유구(오키나와 열도) 사람인데 일본에 있는 오라비를 만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 이 곳 ‘안남’에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연민의 정을 느끼다가 사랑을 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금슬이 좋은 부부는 해를 건너 하나씩 자식을 낳아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어요.</p> <p>그러던 어느 날 안남에 큰배가 도착했어요. 복수는 홀어머니와 친구들이 보고 싶어 잠을 못 이루었지요.</p> | |

당시 여자는 배에 태우지 않는다고 해서 복수 먼저 고향에 갔다가 가족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배에 올라탔어요. 먼저 일본에 간 복수는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 춘향의 오라비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당장에 오누이를 만나고 싶어 유구로 떠나자고 했어요. 그들을 태운 배는 제주를 거쳐 유구로 가고 있었어요. 마침 복수의 고향을 지나게 되자 그는 띠를 내어 물통에 구멍을 뚫어서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리고는 제주에 잠시 배를 대어 물을 길고 가자고 했지요. 제주에 닿은 복수는 집으로 달려가 동네 어른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나, 배는 복수를 기다리지 않고 유구로 떠나 버렸어요. 배를 놓친 복수는 부두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춘향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는 없었어요. 그 날부터 복수는 춘향이 생각나면 바닷가를 찾았답니다. ‘오돌또기’는 복수의 입에서 저절로 흥얼거리듯 노랫가락이 흘러나온 노래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복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바다로 건너갔다고도 하고, 배를 타고 춘향에게로 갔다고도 하는 소문이 퍼졌지요. 지금의 ‘오돌또기’는 김복수와 임춘향의 애처로운 사연이 사라지고 노래만 남아 전하고 있는 거랍니다.

| <오돌또기>민요 | 춘향의 입장에서 민요 창작하기 | 복수의 입장에서 민요 창작하기 |
|---|---------------------|---------------------|
| <p>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p> | | |

3) 편지쓰기

현재 민요를 접하는 청자의 입장에서 노동요의 시적 화자가 될 수 있는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게 한다. 격려나 위로, 공감하는 입장으로 편지를 써 보는 활동을 통해 주인공의 태도와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주인공을 동일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 |
|---------|
| _____에게 |
| |
| |
| |
| |
| |
| |
| |
| |
| |
| |

4) 노동요 속의 주인공 성격을 바꾸어 제시한 후 펼쳐질 이야기 상상하기

노래에 등장하는 갈등 상황을 찾아본 후 주인공의 성격을 바꾼다면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 것인지, 펼쳐질 이야기를 상상하도록 한다.

| 대상 노동요의 예 | 상상하여 이야기 꾸미기 |
|-------------|--------------|
| 춘하추동 스시절에 | |
| 일기만 종당 흐른 | |
| 저 바당에 등등 명 | |
| 흔질 두질 지폰 물에 | |
| 내 집 ㄱ찌 출입흐명 | |
| 고동 생복 따다근에 | |
| 어린 즈식 달래명 | |
| 모든 고생 다하는구나 | |

5) 고난 극복 등 특별한 일을 겪은 주인공 탐구하기

고난과 역경을 헤쳐 온 주인공을 탐구하여 노래 이해와 관련한 사항 및 주인공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때 학습자가 인물의 심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면 인물의 심리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용이하다.

| | |
|-------------------|--|
| 탐구대상의 인물 | |
| 탐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 |
|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 | |
| 인물의 성격과 특징 | |
| 인물의 모습 | |
| 인물에 대한 자신의 평가 | |
| 종합하기 | |

6) 노래 속의 주인공이 되어 상상하여 일기 쓰기

노래 속에 들어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과 등장인물을 동일시하여 그 느낌을 살려 일기를 써 본다. 노래 속의 한 장면을 선택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써 본다면 제주 노동요를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등장 인물의 심리 파악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 |
|-------------------------------------|
| _____ |
| 년 월 일 날씨 |
| |

7) 후일담 만들기

가창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지만 노동요가 하나의 노래 안에서 완성도를 갖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많다. 그런 경우 뒤에 이어지는 노래 사설과 이야기들은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독자의 몫으로 마지막 부분을 완성도있게 채워 보는 작업도 가창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 가설을 설정해 보자.

| |
|--|
| |
|--|

2. 등장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보자.

3. 등장 인물의 신분이나 상황을 바꿔보자.

4.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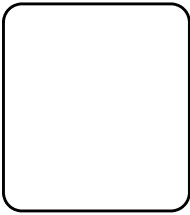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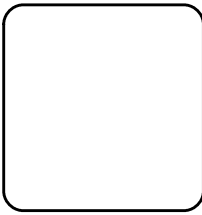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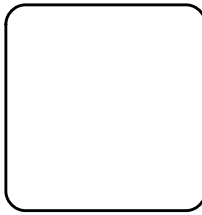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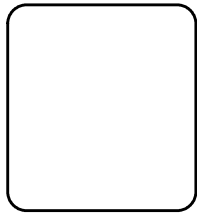
5. 결과를 예측하여 마지막 부분을 완성해 보자.

6. 소감을 써 보자.

8)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상상하여 그리기

제주 노동요를 감상한 후, 노래 속의 상황을 유추하게 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등장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보고 제주 여성들의 삶의 배경을 이해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노래 속에 나타난 인상적인 장면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흥미로워하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스토리를 구성하게 한다.

1. 만화 속에 등장할 인물들의 얼굴을 상상하여 그려봅시다.

| | | | |
|---|---|---|--|
|  |  |  |  |
|---|---|---|--|

2. 가장 인상적인 장면과 그 이유를 써봅시다.

| 인상깊은 장면 | 그 이유 |
|---------|------|
| | |

3. 위에 써 놓은 것들을 만화로 그려봅시다.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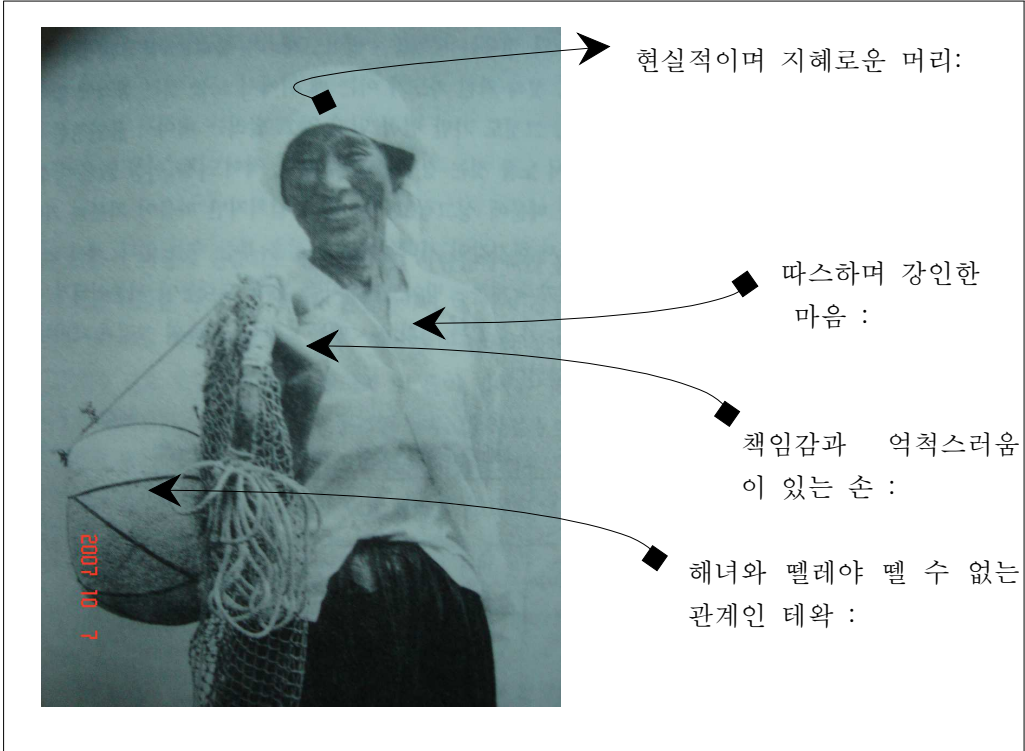
9) 도표를 이용하여 비교·대조하기

주인공의 삶을 다루거나 또는 시적 화자가 여성인 현대시를 선택하여 두 노래에 등장하는 여성의식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공통점이나 다른 점을 찾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여성들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아울러 문학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두 노래를 분석할 수 있다.

| | 김소월 <진달래꽃> | <해녀노래> |
|-----|------------|--------|
| 차이점 | | |
| 공통점 | | |

10) 그림을 이용한 창의적 활동

제주 노동요를 감상한 후, 사진을 이용해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거나 주인공을 소개하면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 특히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꺾은 선 그래프를 활용하여 감정의 기복에 따라 선의 높낮이를 조절하면 심리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주인공을 소개하는 경우 그의 특징을 부위별 화살표로 연결해 자세히 표현하도록 하면 주인공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11) 신문 기사로 바꾸기

노동요 속의 장면이나 사건을 정한 후 학습자는 노래 속으로 취재하러 간 기자라고 가정한다. 노래 속 상황을 구체적이며 실감나게 상상한 후 기사로 써 본다. 신문 기사는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킨 후 기자가 되어 한편의 기사를 완성시키도록 한다. 중학교 1학년 생활국어에 제시되어 있는 신문기사의 구성에 대한 언급을 통해 표제-부제-본문-해설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며 기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
|-----|--|
| 표 제 | |
| 부 제 | |

| | |
|-------|--|
| 본 문 | |
| 해 설 | |
| 취재기자명 | |

V. 결 론

민요는 서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진솔하게 형상화하는 구비문학이며, 제주도 민요 역시 제주 도민의 생활의 질곡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과거로부터 자연·지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인근 문화권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는 제주도 사회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하였다. 타 지역의 생활과는 이질적인 많은 부분들을 제주도는 간직해 왔으므로 오늘날 제주도는 민속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 전승되는 민요는 타 지역의 민요보다 질적·양적으로 풍부하고 문화자료적 의의 또한 크다. 따라서 제주도 민요를 파악함으로써 제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생활과 제주도의 문화적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귀중한 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주도 노동요를 중심으로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제주도 민요의 전반을 차지하는 노동요의 특성과 위상을 파악하였고, 대표성을 지닌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에 나타난 여성 의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아울러 제주 여성의 무한한 정신적인 힘과 삶의 지혜에 기반한 제주 노동요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요소를 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 등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인식 뒤에 얼마나 많은 제주 도민, 더 좁게는 제주 여성들의 모질고 억척스러운 환경에의 도전과 인고, 자강불식의 정신이 내재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제주도는 ‘風多·石多·女多’의 섬으로 잘 알려진 한국 최대의 휴화산 섬이다. 지표는 대부분이 현무암층으로 덮여 있어 밭이 98%이상을 차지하며 絶海孤島인 탓에 예로부터 최악의 유배지로써 변방으로써 통치원리들이 다양하게 역으로 굴절되어 갖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희생이 되어 왔다.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폭력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는 제주도 특유의 女丁이라는 말을 산출하게 된다. 갖은 外侵과 공납의 폐단으로 인해 제주 여성은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억척스럽게 생활을 해 나가야만 했다. 남정들이 죽거나 떠난 불모지에서 그들은 강한 생활의 집착으로 삶

의 주체가 되어 생활을 연명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땅의 척박함은 곧 그네들을 바다로 삶의 공간을 연장하게 했고 바다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요 문힐 안식처였다. 이러한 제주 여성의 삶은 제주 민요의 곳곳에 자주 등장하여 그들의 삶을 대변해 준다. 삶의 억척스러운 면이 제주 민요에 있어 4/5를 노동요로 채워지게 했으며 또한 여성 노동요가 남성 노동요와 비교해 4 대 1의 비율을 낳기도 했다.

제주도 민요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맷돌·방아노래>는 양·질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가사내용에 있어서도 작업실태 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친 여성들의 실정과 고뇌, 시집살이, 애정, 가사와 가족, 경제, 자립과 근면, 신앙과 풍토, 꿈과 소망 등 다양한 감정을 노동과 결부해 토로함으로써 고된 삶의 무게를 노래를 통해 덜어보고자 했으며 이는 제주도 노동요의 문학적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맷돌·방아노래>의 형식은 4·5조의 2음보, 1행씩의 4행이면서 2행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전형이다. 대부분이 독창으로 부르는데, 이는 맷돌질의 경우 본디 혼자 하는 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독창으로 불리는 노래는 후렴없이 대체로 전승되어 온 사설을 가창하면서 새로운 자작 사설을 첨가하기도 한다. 독창의 민요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설보다는 신체타령이나 생활의 고통, 개인적 소망 등 창작 개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기능이 강한 사설이거나 또는 이야기 구조를 갖춘 서사체의 사설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며 문학적인 가치가 높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 노동요 가운데서도 다른 노래의 창법과 구분되는 점이다.

<맷돌·방아노래> 사설에 나타난 세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서울’로 대표되는 육지를 갈망하는 노래가 많았다. 이는 척박하고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제주 여성들의 사고를 잘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늘 자연은 인간과 대조적이지만 자연은 제주 여성들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가장 가깝고 친숙한 제재로 등장한다.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의 현장이며 생계의 배경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장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주 여성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의식으로는 맷돌·방아작업을 하면서 불려지는 시집살이 노래가 압도적이다. 고된 시집살이를 종살이로 비유하며 시대과의 갈등을 해학적인 비유를

통해 극복하고 여유를 찾으려 했다. 또한, 제주도 가족제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철저한 분가원칙이 노래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인 역할을 가중시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결혼제도에 대한 구속력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의식에서는 노래 곳곳에서 보여지는 제주 여성의 근면성에 초점을 두었다. 제주 여성에게 주어진 척박한 환경과 제도의 폐해를 초인적인 근면성으로 극복하려 했으며 이는 제주 여성을 자립과 근면성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쉽없이 살아왔지만 진정 소중한 것은 자신의 인생임을 자각하는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여성의 억척스러운 삶의 자세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해녀노래>는 <맷돌·방아노래>와 비교하여 썩 가다듬어지지 않는 못했으나 나름대로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녀노래>의 음수율은 4·4조가 주류를 이룬다.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교환장에서 나타나는, 공동창이면서도 개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독특한 사설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사설에 구애됨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유연하게 각자의 사설을 구성해 내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공동창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 민요의 주된 가장자를 이루고 있는 여성들이 평소 생활현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면서도 자기 독자성을 잃지 않으려는 주체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해녀노래> 사설에 나타난 세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여도’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비실재적 허구의 섬이라는 과학적 논증보다 우선하는 개념으로 풍요와 안락이 넘치는 정도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바다에서 희생되는 숭한 생명들이 ‘이여도’라는 공간에서 머물기를 기원하며 彼岸과 此岸의 경계에 자리잡는다. 이는 제주 여성들의 環海孤島의 환경 속에 작은 위안이라도 삼고자 하는 마음의 응결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의식은 ‘바다’에 대한 자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바다는 남편을 앓아간 원한의 공간이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제주 여성에게 바다는 운명적인 생활공간으로 인식되며 이런 거친 바다를 상대로 옹호한 기상을 표출한다. 이는 여느 남성 못지않은 자세로, 자신이 처한 운명을 긍정적,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제주 여성의 기상을 찾아볼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의식으로는 노래 속에 나타난 官과 결혼제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주도

민에게 官은 타 지역보다 더욱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중앙정부의 술한 공납과 지방 관리의 횡포가 극심하여 도민의 생활은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에 노래를 통해 官을 풍자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측면은 官이 쉽게 앗아갈 수 없다고 노래하며 더욱 소중한 면을 부각시켜 위안을 삼는 지혜로운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삶이 어려울수록 인간은 일탈을 꿈꾸게 된다. 늘 반복되는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결혼제도를 통해 이뤄지기를 염원하며, 자신의 소망을 진솔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의식에는 현실중심의 사고가 반영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된 질곡의 삶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삶에 대한 애착, 강한 집념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하는 노동행위에 대한 자각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늘 자신을 독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보편적인 남성의 생활터인 바다를 여성의 여리디 여린 몸으로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서는 조그마한 두려움은커녕 옹혼한 기상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삶의 운명으로 체념하여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과 해학으로 승화할 줄 아는 제주 여성 특유의 현실성이 돋보인다. 멀리 중국과 소련까지 출가하여 삶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갖은 공납의 폐단으로 인한 희생 속에서도 그네들의 바다를 떠날 줄 모르는 자세에서 남성 못지않은 강직하고 침묵하는 여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눈물과 환란만이 그들 곁에 있는 듯 하지만 결코 운명을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 나가려는 현실개척 의지는 지금의 제주도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하루도 손을 쉴 새 없이 돌과 마른 흙먼지로 가득한 밭일과 모진 바람에 의한 풍상만이 있는 바다의 일을 겸하면서 묵묵히 노래를 통해서만 자신을 위로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모진 환경에서도 굽힐 줄 몰랐던 제주 여성의 삶을 통해 그들의 깊은 곳에 자리한 저력이 과거의 메마른 땅과 포효하는 바다를 이기고 오늘의 풍요로운 제주도를 있게 하였음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민요에 대해서 그들의 복구만이 제주도 정신을 살리는 길임과 동시에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인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삶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자하는 제주 여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진 삶을 정신적인 힘으로 내실있게 꾸려나가며 삶의 지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통한의 역사 속에서 절제와 검소, 질박과 근검, 불패와 자립의 삶을 살아왔던 제주 여성들은 아직도 제주인의 가슴 속에 무한한 저력과 힘을 심어주며 제주인에게 있어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네의 어머니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등학,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 집문당, 1996.
_____,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2000.
_____, 『한국구비문학개론』, 민속원, 2003.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고교형, 『제주도의 민요』, 천리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74.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87.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_____, 『제주도 민요연구 하』, 민속원, 2002.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제주도 교육연구원, 『옛 제주의 민속 세시풍속 민요』, 동양산업사, 1984.
제주도 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1976.
제주역사연구회, 『제주인의 삶』, 1989.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 도서출판 예술, 1992.
_____, 『제주도 민속음악』, 신아문화사, 1991.

2. 학위 논문

- 강경선, 「향토민요의 국어과 교재화 가능성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01.
강경수, 「제주도 민요의 분석 연구:제주시 노동요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1990.
강민정, 「학교 교육통한 향토 민요의 전수 교육 실태 조사」, 경인교대 석사논문, 2007.
강문유,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90.
강성균, 「제주도 김매는 노래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86.
강영희, 「제주도 해녀뱃노래의 분석적 연구: 헤테로포닉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0.

김도훈, 「제주 민요 <맷돌노래>에 나타난 서정성 연구:恨 motif를 위주로」, 서강대 석사논문, 1999.

김승태, 「제주도의 연자매와 그 민요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82.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동국대 석사논문, 1976.

김창수,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구비문학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선문대 석사논문, 2005.

변성구, 「제주 민요 기능과 사설의 현장론적 연구」, 제주대 박사논문, 2006.

_____,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의 실태와 방향」, 제주대 석사논문, 2004.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과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4.

_____, 「제주도 노동요의 리듬적 특성과 노동행위의 관계」, 제주교대 논문집 제17집, 1986.

3. 기타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김영돈, 「제주도 민요와 현실성」, 『제주도』 제15호, 제주도, 1964.

_____, 「제주 민요의 배경과 분류」,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1992.

_____, 「제주 도민의 근면성」, 『제주도』 제43호, 제주도, 1970.

_____, 「민요연구의 과제와 관점」, 『민요논집』 창간호, 민요학회, 1988.

윤치부, 「제주 민요의 낙원상실 모티프」,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이 근, 「제주 도민의 자립정신」, 『제주도』 제43호, 제주도, 1970.

임현도, 「제주도 여성의 탄식요 고찰」, 『제주도』 제22호, 제주도, 1965.

_____, 「제주도 여성의 탄식요 고찰(1)」, 『제주도』 제23호, 제주도, 1965.

_____, 「제주도 여성의 탄식요 고찰(2)」, 『제주도』 제24호, 제주도, 1965.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성과 노동행위의 관계」, 『제주도연구』 4호, 1986.

_____, 「기능으로 본 제주도 민요」, 『제주도』 제85호, 제주도, 1988.

좌혜경, 「제주도 민요의 서술구성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 제11호, 1991.

_____,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

_____,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들의 세계 인식」, 『백록어문』 제13집, 1997.

한기홍, 「멀치후리는 노래의 실상」, 『민요논집』 창간호, 민요학회, 1988.

현용준, 「제주 도민의 검소생활」, 『제주도』 제43호, 제주도, 1970.

Abstract

Folksongs fall under an oral literature which is made, developed and harmonized with the trinity by the populace and related to its life. As folksongs expose peculiar regional tunes and emotions, they have important roles in expressing their emotions and the integration of the members as one.

Jeju island has been more geographically isolated than the other regions from the past, so their culture is relatively indigenous. As their life has many kinds of heterogeneous cultural traits, it is very important to research the ethnic customs of their culture nowadays. At present, folksongs transmitted in Jeju island are very abundant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they are valuable documents which show their life and cultural character. Thus, it is a very valuable thing to study folksongs which expose regional life and culture.

Moreover, we are worried about Jeju's traditional culture disappearing these days, and it is very valuable to conserve the folksongs through the study of how they combined regional life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Jeju women's life and consciousness through labor folksongs. After the characteristics of Jeju folksongs had been set by their theoretic circumstances, the folksongs for people were setting the social effectiveness. I reviewed how the Jeju women's spirit was exposed in these representative songs, "Songs of a stonemill" and "Songs of Jeju women diver".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I reviewed many kinds of applications for the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the minds of students related to this independence and community consciousness.

In the past, as Jeju women's life reflected overcoming any kind of difficult environment including natural and economical problems, folksongs were the only way to endure their backgrounds, and is the source of prosperity in Jeju island today. Nowadays, folksongs are disappearing more and more, and the restoration

and succession of folksongs is one way to memorize the spirit of Jeju women.

The spirit of Jeju women is to endure their own difficult environment by moderation, not failing, frugality and independence to encourage their own life. Finally, the spirit of Jeju women is the source of a mother's mind living forever.